www.kfif.or.kr

금융산업공익재단 사업보고서

2024. 11. ~ 2026. 10.

희망이 피어나다

마음이 닿는 곳,

금융산업공익재단
Korea Financial Industry Foundation

금융산업공익재단
Korea Financial Industry Foundation

금융산업공익재단은 은행권을 중심으로 한 금융산업노사가 공동으로 기금을 출연하여 함께 운영하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공익재단입니다. 재단은 33개 금융기관 노사가 뜻을 모아 2018년 10월 4일에 출범하여 국내외 금융 및 사회 취약계층을 지원하면서 따뜻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금융산업공익재단 CI 로고는 '라인'이 서로 이어지는 모습과 '색상'이 서로 합쳐지는 모습으로 "금융산업 노사의 상생"을 상징하였고, "금융산업공익재단을 통해 행복한 대한민국"을 표현하였습니다.

CONTENTS

04 발간사

06 재단 소개

08 지난 2년의 성과

10 사업영역 I 포용금융
- 사회적 금융
- 생애주기별 금융교육
- 자산형성

36 사업영역 II 일자리
- 일자리 연계
- 소득창출

54 사업영역 III 미래세대
- 시민역량 강화
- 정서자립

68 사업영역 IV 지역상생
- 취약계층 지원

78 한눈에 보는 재단 사업

79 출연기관 및 수행기관

Korea Financial Industry Foundation

‘포용금융, 일자리, 미래세대, 지역상생’을 중심으로 더 많은 이의 삶에 따뜻한 변화가 이어지는 사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지난 2년을 돌아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사람들의 얼굴들입니다.

꾸준한 저축으로 작은 희망을 손에 쥔 이의 안도, 낯선 땅에서 다시 일어설 용기를 낸 이주배경 노동자의 미소, 굳게 닫아 두었던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온 청년의 첫인사, 서로의 다름을 배우며 한 뼘 더 넓은 세상을 만난 아이들의 웃음. 그 작은 변화의 순간들은 우리가 하는 일의 의미를 다시금 일깨워 주었습니다.

올해 우리 재단은 ‘포용금융, 일자리, 미래세대, 지역상생’이라는 네 가지 방향을 중심으로 사업 영역을 새롭게 정비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업의 구분이 아니라, 우리가 걸어온 경험을 바탕으로 사람의 삶과 사회의 변화를 보다 긴 호흡으로 바라보기 위한 새로운 출발입니다.

각각의 방향에서 주목한 것은 더 나은 삶을 위한 기반이었습니다.

먼저 금융의 문턱에서 머뭇거리던 이들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사회적 금융으로 다시 일어설 기회를 마련하고, 생애주기 금융교육으로 미래를 설계할 힘을 불어넣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아껴 모은 저축이 안정된 내일로 이어지도록 하여 금융이 누구에게나 든든한 안전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일자리는 스스로의 삶을 만들어 가는 출발점입니다. 취업과 창업, 직업훈련의 기회를 통해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지역사회가 지속가능한 소득 기반을 세워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자 했습니다. 일자리가 단순한 소득을 넘어 내일을 살아가는 힘이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미래세대를 향한 발걸음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동과 청소년, 청년들이 더 넓은 세상을 배우고 존중의 감수성을 키울 수 있도록 배움의 기회를 넓혔으며, 은둔·고립청년과 자립준비청년들이 다시 세상과 연결될 수 있도록 경험의 자리를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아끼는 마음이 함께 살아가는 힘으로 자라날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지역 곳곳에서도 사람과 사람을 잇는 손길을 이어갔습니다. 지역주민과 당사자가 어우러지는 공동체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사람을 연결하며 일상에서 마주하는 크고 작은 어려움을 살피고자 했습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서로의 일상을 돌보는 지역사회를 그리고자 했습니다.

이 모든 걸음은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을 모아 주신 많은 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현장에서 묵묵히 사업을 운영해 주신 협력기관 임직원분들, 그리고 우리를 믿고 지지해 주신 금융노조 조합원과 33개 금융기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재단은 지난 시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필요한 곳에 힘이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변화하는 사회의 흐름에 맞춰 사업을 이어가며 우리 사회 곳곳에서 따뜻하고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2년, 걸음을 나란히 해 주신 모든 분들의 고마운 마음을 기억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금융산업공익재단의 새로운 여정을 따뜻하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10월
금융산업공익재단 이사장

주 원



금융산업공익재단

금융산업공익재단은 은행권을 중심으로 한 33개 금융기관 노사가
함께 뜻을 모아 설립한 세계 유일의 산업단위 노사 공동 사회공헌재단입니다.

2018년 출범 이후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바탕으로 금융과 사회 취약계층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람과 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이어오며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금융노사의 상생과 협력의 가치를 바탕으로 도움이 필요한 곳에 마음을 전하며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미션

금융산업 산별협약을 통해 조성한 기금으로 국내외 금융 및 사회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공헌사업을 수행하여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한다.

추진전략

- 금융취약계층 지원 민관협력 강화
- 환경·사회·복지 영역 지속가능한 인프라 구축
- UN 지속가능 발전 목표(SDGs)에 기반한 사회공헌
-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협력기관 발굴·육성

핵심 SDGs

- 8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 1 빈곤퇴치
- 10 불평등 감소
- 17 지구촌 협력 강화
- 13 기후변화와 대응
- 4 양질의 교육
- 16 평화·정의·포용

4대 사회공헌 영역

포용금융 · 일자리 · 미래세대 · 지역상생

재단의 지난 2년 성과

마음이 닿은 곳에서, 희망은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금융산업공익재단은 지난 2년간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가 마주한 다양한 문제 해결에 앞장서왔습니다.

금융 접근성과 자산형성부터 일자리와 자립, 미래세대를 위한 배움과 성장,
지역사회의 상생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곳에 기회를 연결하고 변화를 만들어 왔습니다.

포용금융, 일자리, 미래세대, 지역상생의 네 가지 영역에서 이어온 지난 2년의 발걸음을 소개합니다.

총 사업비

16,344,233,115 원

총 수혜자

260,128 명

총 수혜기관

2,257 기관

- 학교 939 개교
- 비영리조직 95 개
- 기업 22 개
- 지역아동센터 1,200 개
- 연구시스템 구축 1 건

포용금융

사회적 금융 ····· 희망의 기회를 잇다

- 사회적 금융 지원: **14.3** 억 원 규모
- 사회적경제조직 등 지원: **38** 개 기관
- 금융 접근성 지원: **267** 명

생애주기별 금융교육 ····· 희망의 힘을 키우다

- 세대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금융교육 수혜: **115,829** 명

자산형성 ····· 희망의 내일을 세우다

- 자산 형성 지원: **23** 억 원 규모
- 1년 이상 저축 지속률: **87.1** %

일자리

일자리 연계 ····· 희망의 가능성을 열다

- 직업 역량 강화 참여 인원: **5,861** 명
- 취업 연계 인원: **695** 명
- 문화예술 분야 지원 인원: **73** 팀
- 창업 연계 인원: **36** 명

소득창출 ····· 희망의 터전을 만들다

- 소득 창출 지원 인원: **5,853** 명
- 주민소득 증가율: **72** %
- 자원 처리 연간 소득가치 환산액: **3** 천만 원 규모

미래세대

시민역량 강화 ····· 희망의 씨앗을 심다

- 시민역량 교육 참여 인원: **22,077** 명 / **6** 개 기관
- 교육콘텐츠 개발 수: **15** 종
  * 인권, 문화다양성, 지속가능경제 등
- 사회적 인식·태도 개선도: **26.7** % 상승

정서자립 ····· 희망의 마음을 보듬다

- 사회적 관계 회복 및 정서자립 지원: **616** 명
- 청년 창작 활동 지원: **59** 명

지역상생

취약계층 지원 ····· 희망의 일상을 지키다

- 생활 필수 서비스 이용 지원: **15,522** 명
  * 의료, 돌봄, 장애인 이동, 디지털 격차 등
- 지역사회 생활 안정 지원: **50** 명

포용금융

마음이 닿은 곳에,

금융은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일상이지만, 또 다른 이에게는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이 됩니다.
금융산업공익재단은 금융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금융교육과 자산형성 지원을 통해 스스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자립의 기반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단순한 금융 지원을 넘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만드는 것.
그것이 금융산업공익재단이 포용금융을 통해 만들어 가는 변화입니다.

다시 시작할 용기가 피어납니다.

총 사업비

8,823,495,260 원

총 수혜자

124,466 명

총 수혜기관

학교	비영리조직	기업
685 개교	16 개	22 개

희망의 기회를 잇다

사회적 금융

누군가에게는 작은 금융의 기회 하나가 내일을 꿈꿀 수 있는 용기가 됩니다.
재단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잠시 멈춰 선 사람들의 금융회복을 돕고, 사회적가치를 만들어가는
이들에게 필요한 금융 접근성을 넓혀 더 큰 변화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금융 지원	사회적경제조직 등 지원	금융 접근성 지원
14.3 억 원 규모	38 개 기관	267 명
* 소액대출, 고금리 대환대출, 이자지원, 인큐베이팅 투자		

희망의 힘을 키우다

생애주기별 금융교육

스스로 선택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힘은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재단은 생애주기에 맞는 금융교육과 재무상담을 통해 올바른 금융 습관과 금융역량을 키우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설계해 나갈 수 있는 자신감과 희망을 함께 키워가고 있습니다.

뮤지컬 기반 교육(합리적 소비) | 초등 ·
게이미피케이션 기반 교육(소비·저축, 금융범죄 예방) | 중등 ·
고교 교과과정 연계 교육(경제수학 기반 연금 이해) | 고등 ·
1:1 맞춤형 상담(개인 재무설계) | 청년 ·
실습 기반 교육(금융사기 예방 및 자산관리) | 장년·노년 ·
집합교육 및 체험형 교육(돈의 가치 및 삶생활 금융역량 강화) | 장애인 ·

세대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금융교육 수혜
115,829 명

희망의 내일을 세우다

자산형성

미래는 한 번의 큰 변화보다 오늘의 작은 실천이 차곡차곡 쌓일 때 만들어집니다.
재단은 금융취약계층의 꾸준한 자산형성을 응원하며, 오늘의 작은 저축이
안정된 삶과 자립이라는 더 큰 희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산 형성 지원	1년 이상 저축 지속률
23 억 원 규모	87.1 %
* 한부모가정, 이주배경 청년·노동자, 북한이탈주민,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대상	

사회적 금융

마음이 닿은 곳, **희망**이 피어나다

사회적가치창출기업 대출 지원사업
주거취약계층 주거복지기금 대출 지원사업
지역 돌봄 공동체 인큐베이팅 사업
청년 희망사다리 대출 지원사업
고금리 다중채무자 이자지원 및 재무관리역량 강화사업



사회적가치창출기업 대출 지원사업

수행기관 신나는조합

세부 프로그램

· **대출지원 대상기업 선정**
기업별 사회적가치 창출 실적, 재무 건전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기업 선정

· **사회적기업 대출 지원**
기업당 최대 3,000만 원 대출 지원(연 1% 이자) 및 KPI 달성·성실상환 완료 시 이자 환급

수혜자 후기

열악해진 재정 상황 속에서 대출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꼭 필요한 활동을 계획대로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필요한 시기에 지원금이 운영의 지렛대가 되었고, 전년 대비 올해 상반기 매출액 증가라는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1% 저금리'에 더해 성실 상환과 목표 달성 시 받을 수 있는 '이자 환급'까지 시중 금융권에서 찾기 어려운 지원 사업이 기업의 실질적인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이러한 성장이 사업을 지속하고 미래를 설계해 나가는 토대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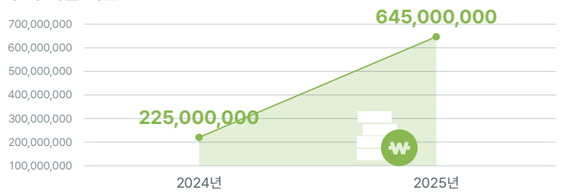
파트너기관 담당자 후기

금융산업공익재단의 지원 덕분에 사회적가치창출기업 대출지원사업을 2024년부터 지속해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금융산업공익재단처럼 우리 사회 곳곳에 밝음을 뿌리내리고 있는 사회적가치창출기업에 금융의 온기를 전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금융산업공익재단의 든든한 파트너로서 금융의 온기가 필요한 곳에 온전히 전해지고, 보다 따뜻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 신나는조합 최희원 대리

Since 2024

누적 대출 기금 단위: 원



사업비
500,000,000 원

수혜자
22 기업



주거취약계층 주거복지기금 대출 지원사업

수행기관 (사)나눔과미래

세부 프로그램

- **청년 주거 보증금 대출 지원**
  중위소득 130% 이하 청년 대상 최대 1,500만 원 한도 보증금 대출 지원(연 2% 이자), 성실상환 완료 시 이자 전액 환급
- **저소득층 소액 주거 보증금 대출 지원**
  중위소득 100% 이하 저소득층 대상 최대 500만 원 한도 보증금 대출 지원(연 1% 이자), 성실상환 완료 시 이자 전액 환급
- **주거복지 서비스 지원**
  주거 역량 교육, 주거 상담 및 컨설팅, 공공서비스 연계를 통한 안정적 주거 기반 마련

수혜자 후기

저는 이직으로 이사를 준비하면서 보증금 마련에 대한 부담이 커져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제 상황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 느껴 이번 사업에 신청하게 되었고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업을 통해 단순히 거주지를 옮기는 데 그치지 않고 일상 전반이 긍정적으로 달라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또한 경제적 부담을 덜면서 생활과 미래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여유도 생겼습니다. 이러한 사업이 더 많은 청년들에게 알려지고, 앞으로도 지속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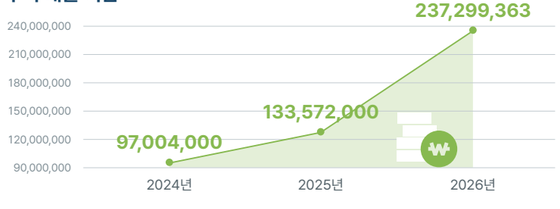
파트너기관 담당자 후기

이 사업을 준비하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신청할지,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 많은 고민과 염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은 구했지만 금융권 대출이 어렵거나, 공공임대주택에 선정되고도 보증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등 예상보다 많은 분들이 기금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수혜자분들의 성실한 상환과 적극적인 프로그램 참여 덕분에 1차년도 사업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2차년도에도 필요한 분들에게 기금이 잘 닿아 집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나눔과 미래 한빛나 차장

Since 2023

누적 대출 기금 단위: 원



사업비
400,000,000 원

수혜자
62 명



지역 돌봄 공동체 인큐베이팅 사업

수행기관 사단법인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세부 프로그램

- **돌봄 의제 발굴**
  사업설명회를 통한 제주 지역 돌봄 의제 발굴
- **돌봄 조직 인큐베이팅**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팀을 선정하여 사업화 전략 수립, KPI 설정 등 인큐베이팅 지원
- **성과공유회**
  성과공유회를 통해 사업 성과를 확산하고 지역 돌봄 생태계 조성 및 네트워크 강화

수혜자 후기

'같이 돌보는 우리의 식탁'은 단순히 식사를 나누는 프로그램을 넘어, 서로의 안부를 묻고 마음을 잇는 돌봄의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요리하고 식사하는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자연스럽게 관계를 회복했고, 우리는 음식을 만드는 것을 넘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혼자 먹기 싫어요."라는 참여자의 한마디는 사업의 가장 큰 성과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함께 만들어주신 금융산업공익재단과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따뜻한 돌봄을 이어가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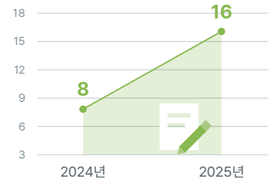
파트너기관 담당자 후기

이번 사업을 통해 소외된 돌봄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며 뜻깊은 성장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참가팀들과 협력하며 해결해 나간 과정은 매우 소중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민간 참여를 통해 누군가를 돕는 것을 넘어 주민이 서로 지탱하는 따뜻한 생태계의 싹을 틔웠다는 점이 가장 큰 성과입니다. 함께해주신 금융산업공익재단과 8개 팀에 감사드리며,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더 나은 공동체 돌봄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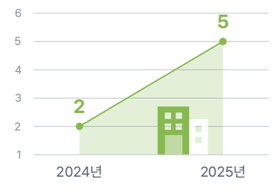
-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장서연 선임매니저

Since 2024

누적 인큐베이팅 지원 조직 수 단위: 개소



누적 법인 및 단체 설립 수 단위: 곳



사업비
400,000,000 원

수혜자
16 팀





청년 희망사다리 대출 지원사업

수행기관 함께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세부 프로그램

· 청년 다중부채 및 고금리 대환대출
금융위기청년의 다중부채 및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연 1% 이자)로 대환 대출

· 청년 긴급생계비 지원
대출부결자 중 월세·공과금 등 필수생활비 조달이 시급한 청년 대상 최대 50만 원 지원

· 청년 금융멘토링 및 교육
신용보고서와 신청서를 활용한 1:1 맞춤형 금융상담, 신용점수관리, 재무관리계획 수립

수혜자 후기

취업을 위해 급하게 이사하며 대출을 이용했고, 정규직 취업 후에도 금리가 높은 대출이 남아 부담이 컸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업을 통해 고금리 대출을 정리할 수 있었고, 1시간이 넘는 멘토링을 통해 제 상황을 세심하게 살펴주시며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까지 함께 찾아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제 이야기를 판단하지 않고 들어주신 덕분에 금전적인 고민을 편안하게 털어놓을 수 있었고, 앞으로의 상환계획을 세우며 다시 시작할 용기도 얻었습니다. 안정적인 생활을 되찾을 수 있도록 좋은 기회를 마련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파트너기관 담당자 후기

사업을 운영하며 청년 부채가 개인의 소비 습관만으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깊이 느꼈습니다. 학자금과 생계비, 치료비, 가족 부양, 불안정한 일자리 등 여러 어려움이 겹치면서 성실하게 살아온 청년들도 빚의 부담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음에도 이를 혼자 감당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까웠습니다. '희망사다리'가 당장의 부담을 덜어주고 다시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을 위한 금융지원과 상담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기를 바랍니다.

- 함께사는세상 사회연대은행 조희라 과장



사업비
450,000,000 원

수혜자
145 명

고금리 다중채무자 이자지원 및 재무관리역량 강화사업

수행기관 전국주민협동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우리함께

세부 프로그램

· 사례관리 기반 금융회복 통합지원
연 15% 이상 고금리 대출 보유 금융취약계층 대상 재무상담 및 맞춤형 사례관리 지원

· 고금리 다중채무자 이자지원
고금리 대출 보유 금융취약계층 대상 월 최대 20만 원, 최대 8개월 이자 지원을 통한 채무 부담 완화

수혜자 후기

고금리로 인해 매달 이자 부담이 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 우연히 '금융산업공익재단'을 알게 되었고 사업 소개를 보고 이자 지원사업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지원을 받은 후 매달 납부하던 이자가 줄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일상에서도 안정감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미래를 위한 계획도 조금씩 세울 수 있게 되었으며, 꼭 필요한 시기에 큰 도움을 주신 '사회적협동조합 우리함께'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성실하게 생활하며 받은 도움에 보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파트너기관 담당자 후기

참여자분들의 채무 상황과 삶의 현실을 보면 이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고민이 많아집니다. 다행히 이 사업은 단순한 이자 지원을 넘어 참여자들의 재무관리 역량 강화를 돕는 금융 회복 통합지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곁에서 채무 조정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미래를 그릴 수 있도록 돕는 과정에서 "앞으로 나아갈 길이 보인다"는 참여자분을 보면 큰 보람을 느낍니다. 참여자를 발굴하는 일이 쉽지는 않지만,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더 많이 만나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사회적협동조합우리함께 유유미 상임이사



사업비
300,000,000 원

수혜자
60 명

생애주기 금융교육

마음이 닿은 곳, **희망**이 피어나다

초등학생 · 중학생 경제금융교육 사업
고교 경제수학 과목 활용 연금교육 사업
청소년 AI, 딥페이크 금융범죄 예방교육 사업
청년 금융어드바이저 서비스 사업
금융취약계층 1:1 맞춤형 금융상담 사업



초등학생·중학생 경제금융교육 사업

수행기관 (사)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

세부 프로그램

· **초등학생 금융 교육**
체험형 키트를 활용한 교육을 통해 금융 기초 개념 학습 지원

· **초등학생 뮤지컬 교육**
학교 방문형 금융 뮤지컬 교육을 통해 합리적 소비 습관과 신용의 중요성 교육

· **중학생 메타버스 금융교육**
메타버스 가상공간에서의 금융 의사결정 및 실천경험을 통한 금융 역량 강화

수혜자 후기

중학교 3학년 사회 교과서에서 배우는 수요와 공급에 따른 가격 형성을 게임을 통해 직접 체험하며 이해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게임 형식의 활동에 흥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평소 어렵게 느끼던 경제·금융 개념도 경제적 의사결정, 신용, 예금을 통한 금융 설계 등을 통해 쉽게 접근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강의 마지막에는 강사분께서 관련 경제 개념을 쉽게 정리해주셔서 학생들의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유익한 교육이 계속되길 기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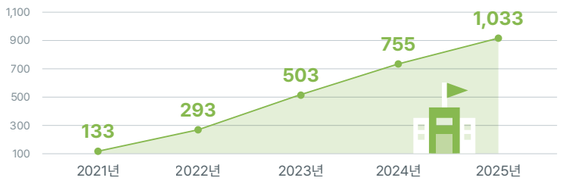
파트너기관 담당자 후기

청소년기 경제·금융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2021년부터 시작된 사업이 서울에서 전국으로, 초등학생에서 중학생으로 확대되며 양적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또한 질적으로도 높은 교육 품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교사와 학생들의 높은 만족도를 확인하고, 학생들이 금융을 어렵게 여기지 않고 건전한 금융 습관 형성을 다짐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큰 보람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청소년들이 양질의 경제·금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 이복순 팀장

Since 2021

누적 학교 수 단위: 개교



사업비
1,799,547,660 원

수혜자
인원 75,746 명
학교 491 개교



고교 경제수학 과목 활용 연금교육 사업

수행기관 (사)밥·일·꿈

세부 프로그램

- **'연금교육 수업모델' 고도화 및 교사 연수회**
  '경제수학', '진로' 과목 기반 연금교육 수업모델 고도화 및 교육 통합 플랫폼 개발
- **교사 연수회 개최**
  수업 적용을 위한 수업모델 및 교안, 콘텐츠 시연 및 과목별 수업 사례 발표
- **전국 고교 대상 연금교육**
  연금교육 수업모델을 활용한 전국 고교 대상 연금교육 시행
- **연금수업 교사 연찬회**
  참여 학교 중 모범 진행사례 발표 및 수업 후기 공유 연찬회 시행

수혜자 후기

경제수학 수업을 통해 단순히 수학 공식을 계산하는 것을 넘어, 실제 경제 현상과 일상생활 속 의사결정을 수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는 점을 배워 유익했습니다. 특히 이자 계산, 연금의 현재가치와 미래가치, 확률과 통계, 수요와 공급 등을 학습하며 경제와 수학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계산 과정이 복잡해 어려움을 느끼기도 했지만, 문제를 반복해서 풀면서 경제 현상을 수치로 이해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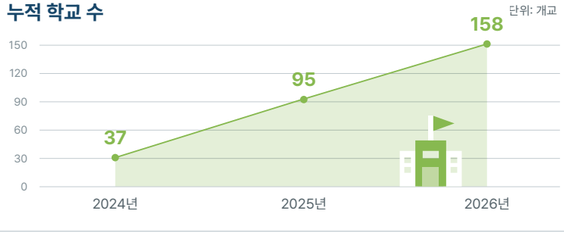
파트너기관 담당자 후기

3년째 진행 중인 연금수업을 통해 전국의 많은 고등학생들이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았던 자신의 생애주기를 상상하고, 부모님의 노후까지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수학적 계산에 자신이 없는 학생들도 쉽게 미래 재무 설계를 해볼 수 있도록 연금 수업용 플랫폼을 개발했고 교사와 학생들의 만족도도 높았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학생들이 연금 수업을 경험해 보기를 기대합니다.

- 밥일꿈 도원경 간사

Since 2024

누적 학교 수



사업비
200,000,000 원

수혜자
인원 10,856 명
학교 119 개교



청소년 AI, 딥페이크 금융범죄 예방교육 사업

수행기관 씨드큅

세부 프로그램

- **AI 금융사기 예방교육 커리큘럼 4종 개발**
  딥페이스, 딥보이스, 스미싱, 피싱사이트 커리큘럼 기반 교육 콘텐츠 개발
- **AI 금융사기 예방교육 오프라인 운영**
  전국 중·고등학생 대상 AI 금융사기 예방교육 운영
- **AI 금융사기 예방 온라인 교육 플랫폼 구축 및 운영**
  LMS 플랫폼 구축을 통한 온라인 교육 동시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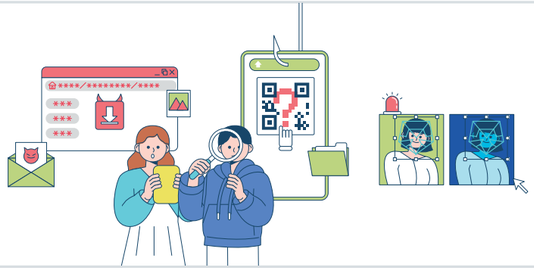
수혜자 후기

이번 교육을 통해 AI와 딥페이크 기술이 우리의 일상 가까이에서 금융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범죄 사례를 배우는 것을 넘어 직접 예방 방법을 익히며 디지털 환경에서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법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신중하게 정보를 확인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예방법을 알려 안전한 디지털 문화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파트너기관 담당자 후기

이번 사업을 준비하며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만큼 이를 악용한 금융범죄 예방교육도 기존의 전달식 교육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학생들은 딥페이크와 딥보이스를 알고 있었지만 범죄에 어떻게 활용되는지와 예방법은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교육 후 학생들이 AI를 더욱 신중하게 사용해야겠다고 생각하거나 가족들에게도 알려주겠다는 소감을 들으며 체험 중심 교육이 금융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올바른 디지털 시민의식을 형성하는 데 의미 있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 씨드큅 김진형 본부장



사업비
168,000,000 원

수혜자
인원 1,865 명
학교 75 개교





청년 금융어드바이저 서비스 사업

수행기관 iFPK 한국재무설계협회 INSTITUTE OF FINANCIAL PLANNING KOREA

세부 프로그램

· **청년 금융어드바이저 서비스**
경기도 및 6대 광역시 만 19~39세 청년 대상 맞춤형 재무상담 제공

수혜자 후기

25년도에 이어 올해도 신청했는데, 이번 상담도 정말 감사했습니다. 작년에 이어 같은 상담사님께 상담을 받으며 지난해 세운 목표를 얼마나 실천했는지 점검할 수 있어 더욱 의미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재무 진단과 소비 패턴을 점검했다면, 이번에는 저축·투자·금융상품에 대해 더 깊이 있게 배울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제 상황에 맞춰 현실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방향을 함께 고민해주셔서 재무적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좋은 상담을 진행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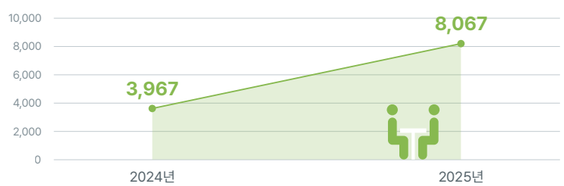
파트너기관 담당자 후기

청년 금융어드바이저 사업을 수행하며 배운 것 중 하나는 지역별로 청년들의 재무적 니즈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단순한 소득과 자산의 차이를 넘어 사회적 환경과 경험, 금융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다양한 재무목표가 설정되는 것을 보며 1:1 재무상담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절감했습니다. 특히 한두 번의 상담만으로도 제안 내용을 실천하며 변화하는 청년들의 모습과 "상담을 통해 도리어 더 많이 배운다"고 말씀하시는 상담사님들을 보며 깊은 감동과 보람을 느꼈습니다.

- 한국재무설계협회 김수미 국장

Since 2024

누적 상담 건 수 단위: 건



사업비
918,450,000 원

수혜자
3,547 명

금융취약계층 1:1 맞춤형 금융상담 사업

수행기관 사단법인 전국퇴직금융인협회 Korea Retired Financial Association

세부 프로그램

· **금융취약계층 전담 신규강사 양성 및 강사 레벨업 과정**
「금융해설사」 양성 신규 교육 및 기존 강사 레벨업 교육 진행

· **금융취약계층 금융교육**
민간 단체, 지자체 등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수혜자별(고령자, 장애인, 한부모가정) 맞춤형 금융교육 진행

· **금융취약계층 1:1 대면상담**
금융교육 과정 중 상담 신청자를 발굴하여 1:1 맞춤형 금융상담 지원

수혜자 후기

저는 그동안 돈 계산이 어려워 항상 엄마의 도움을 받았는데, 강사 선생님께서 쉽게 여러 번 가르쳐 주셔서 이제는 저도 돈 계산을 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금통장과 카드 쓰는 법, 나쁜 사람에게 속지 않는 방법도 배웠고, 혼자 물건을 살 때는 가격표를 확인하고 영수증도 잘 챙겨 기록하고 있습니다.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니 진짜 어른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저를 잘 가르쳐주신 협회 강사님과 배움의 기회를 주신 재단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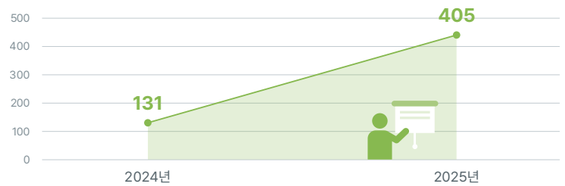
파트너기관 담당자 후기

지난 2년간 사업을 수행하며 약 30,000명에 달하는 수혜자들이 금융 지식 습득과 코칭을 통해 실제 생활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힘들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금융 역량 향상의 기회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금융생활의 기반 마련과 삶의 질 개선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큰 자부심과 보람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소외계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전국퇴직금융인협회 진창옥 사무국장

Since 2024

누적 금융강사 육성 수 단위: 명



사업비
600,000,000 원

수혜자
23,815 명

자산형성

마음이 닿은 곳, **희망**이 피어나다

한부모가정 취업촉진·자산형성 지원사업
이주배경 청년/노동자 취업촉진·자산형성 지원사업
북한이탈주민 취업촉진·자산형성 지원사업
플랫폼노동자 자산형성·자립역량 지원사업



한부모가정 취업촉진·자산형성 지원사업

수행기관 대한사회복지회 Korea Welfare Services

세부 프로그램

· **취업촉진 지원**
직업훈련, 자격증 취득, 면접 지원 및 맞춤형 취업 상담 등 취업 역량 강화 지원

· **자산형성 지원**
월 10만 원 또는 20만 원 정기적금 부금 시 만기 시점까지 6개월 단위로 납입 금액의 20% 매칭금 지원

· **가족관계 프로그램 지원**
개인상담과 한부모가족 대상 캠프 프로그램 지원

수혜자 후기

언젠가는 아이에게 "엄마도 정말 열심히 살았어."라고 자신 있게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하루를 버티는 것만으로도 벅차 저축은 늘 먼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던 중 한부모가정 취업촉진·자산형성 지원사업을 알게 되어 취업을 준비하고 저축을 시작했고, 적금이 쌓일 때마다 단순히 돈이 아닌 아이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희망도 함께 쌓였습니다. 금융산업공익재단과 대한사회복지회의 따뜻한 응원 덕분에 다시 시작할 수 있었으며,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도록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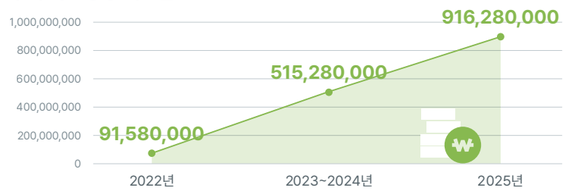
파트너기관 담당자 후기

사업을 진행하며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좋은 지원사업을 만들어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였습니다. 처음에는 힘없고 불안했던 수혜자분들이 적금을 시작하고 매달 저축하며 첫 이자를 받았을 때 밝아진 목소리와 웃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작은 적금 하나가 누군가에게 희망과 용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한 분 한 분의 변화는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소중한 성과였습니다. 앞으로도 한부모가정이 자립의 꿈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 대한사회복지회 김윤주 과장

Since 2022

누적 자산형성 지원금 단위: 원



사업비
629,600,000 원

수혜자
1,292 명





이주배경 청년/노동자 취업촉진·자산형성 지원사업

수행기관 노동인권회관 LABOR HUMAN RIGHTS CENTER

세부 프로그램

· 취업촉진 지원
직업훈련, 자격증 취득, 면접 지원 및 맞춤형 취업 상담 등 취업 역량 강화 지원

· 자산형성 지원
월 10만 원 또는 20만 원 정기적금 부금 시 만기 시점까지 6개월 단위로 납입 금액의 20% 매칭금 지원

· 한국어능력시험 지원
한국어 능력 향상과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TOPIK 응시료 지원

· 금융생활 및 취업 장벽 실태조사
이주배경 청년 및 노동자의 경제활동 현황과 취업 장벽 분석을 통한 정책 제언 마련

수혜자 후기

자산형성, 취업지원, 토픽 응시료 지원 등 외국인에게 꼭 필요한 지원과 더불어 처음 받아본 금융교육, 저에게 맞춘 진로상담 덕분에 대학 생활을 계획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 졸업과 취업, 한국에서의 정착까지 필요한 내용들이라 막막함과 부담을 크게 덜었고, 이주배경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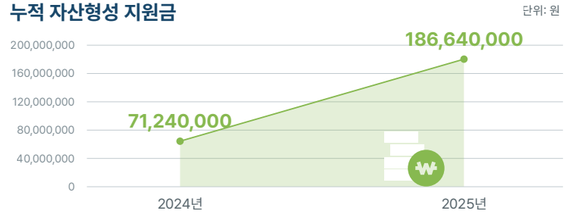
파트너기관 담당자 후기

통장정리도 어려워하던 청년이 저축의 즐거움을 깨닫고, 막막했던 취업 준비의 빈 구석을 하나씩 메워나가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던 것은 실무자로서 큰 기쁨이었습니다. 이주민들의 든든한 버팀목인 이 사업이 앞으로도 지속되기를 희망합니다.

- 노동인권회관 정유림 담당자

Since 2023

누적 자산형성 지원금



사업비
665,230,000 원

수혜자
2,780 명

북한이탈주민 취업촉진·자산형성 지원사업

수행기관 남북하나재단 Korea Hana Foundation

세부 프로그램

· 자산형성 지원
월 10만 원 또는 20만 원 정기적금 부금 시 만기 시점까지 6개월 단위로 납입 금액의 20% 매칭금 지원

· 탈수급 촉진 지원 '하나데이 프로젝트'
근로능력 보유 수급자의 취업 역량 강화, 일 경험 지원을 통한 자립 기반 마련

수혜자 후기

2004년 7월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 20년이 흘렀지만 금융활동을 배우거나 실천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청약저축, 일반저축과 '복리', '단리'라는 말만 어렴풋이 알 뿐 금융 지식이 부족해 저축도 선뜻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참여하며 금융 기본지식과 저축법, 사기 예방법을 배우고 적은 돈이라도 꾸준히 저축하는 습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작은 습관이 삶을 바꿔나간다고 믿으며, 금융교육과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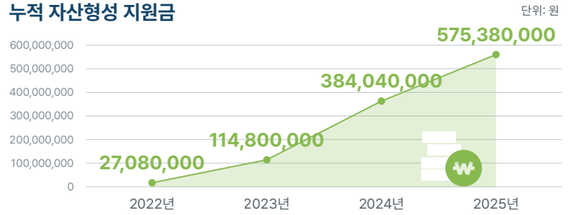
파트너기관 담당자 후기

금융산업공익재단과 함께한 북한이탈주민 취업촉진·자산형성 지원사업은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데 의미 있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취·창업지원, 자산형성지원, 금융경제 생활교육·금융주치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이 경제적 자립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도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자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남북하나재단 최고은 대리

Since 2022

누적 자산형성 지원금



사업비
615,180,000 원

수혜자
2,309 명



플랫폼노동자 자산형성·자립역량 지원사업

수행기관 한국플랫폼 프리랜서 노동공제회

세부 프로그램

· **자산형성 지원**
월 10만 원 또는 20만 원 정기적금 부금 시 만기 시점까지 6개월 단위로 납입 금액의 20% 매칭금 지원

· **역량강화 교육**
플랫폼노동자·프리랜서를 위한 업종별 직무역량 교육 제공, 직종별 포트폴리오 템플릿·모범계약서 개발 등 지원

· **역량강화 정책 연구**
플랫폼노동자·프리랜서 자산 형성 실태 및 역량강화 교육 효과성 분석 등 자립기반 강화를 위한 정책모형 개발

수혜자 후기

프리랜서는 소득이 일정하지 않아 저축이나 자기계발을 꾸준히 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업에 참여하며 저축하는 습관을 만들 수 있었고, 응원금은 단순한 지원금을 넘어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계약·세무 등 실제 업무에 필요한 내용을 배우며 자신감을 얻었고, 혼자 일하는 프리랜서에게 함께 배우고 경험을 나누는 시간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지원사업이 계속되어 더 많은 프리랜서와 플랫폼노동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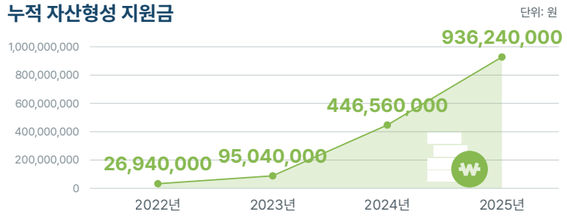
파트너기관 담당자 후기

프리랜서와 플랫폼노동자는 불안정한 소득 속에서 스스로 경력을 관리하고 역량을 키워야 하지만, 교육을 위한 시간과 비용 마련이 쉽지 않고 미래를 위한 저축도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단의 사업은 이들에게 단순한 지원을 넘어 일을 이어갈 힘과 미래를 준비할 기반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습니다. 특히 "누군가에게는 작은 금액일 수 있지만, 나에게는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응원이 되었다"는 참여자의 이야기를 통해 지원금 이상의 용기와 자존감 회복을 돕는 사업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조소현 부장

Since 2022

누적 자산형성 지원금



사업비
1,177,487,600 원

수혜자
1,989 명

INTERVIEW

플랫폼노동자 자산형성·자립역량 지원사업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조소현 부장



Q 간단한 자기소개 및 현재 담당하고 계시는 업무를 소개해주세요.

A 저는 한국노동공제회 회원공제사업단에서 회원 관리와 자산형성·역량강화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조소현 부장입니다. 플랫폼노동자와 프리랜서가 일하면서 겪는 경제적 불안정과 사회적 안전망의 공백을 덜 수 있도록 금융산업공익재단과 함께 자산형성 지원과 역량강화 교육을 운영하고, 이러한 지원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회원들이 스스로 미래를 준비하고 자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Q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는 2021년부터 재단과 함께 플랫폼노동자·프리랜서의 자산형성, 직업훈련, 안전기반 조성 등을 지원해왔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올해 자산형성·자립역량 지원사업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A 올해는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지 고민해보는 해였습니다. 플랫폼노동자와 프리랜서에게 자산형성은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을 넘어, 불안정한 소득 속에서도 스스로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참여자들이 어떤 변화를 경험했는지 돌아보고, 일회성 지원을 넘어 스스로 삶을 설계하고 지속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방향으로 사업의 의미를 넓혀가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Q 강사·배달·가사관리사·디자이너 등 다양한 직종의 수혜자분들이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그중 가장 인상 깊었던 참여자의 변화는 무엇인가요?

A 특정한 한 분의 사례보다는, 처음에는 '내가 과연 꾸준히 저축할 수 있을까' 생각했던 분들이 지원을 계기로 저축을 생활의 습관으로 만들어가는 모습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작은 금액을 꾸준히 모으면서 '나도 미래를 준비할 수 있구나'라는 경험을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자신의 소비와 앞으로 필요한 자금에 대해서도 돌아보게 됩니다. 결국 가장 큰 변화는 저축한 금액보다, 자신의 미래를 위해 직접 계획하고 행동해 본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Q 플랫폼노동자·프리랜서의 업무 특성상 역량강화 교육 기획부터 운영까지 고려해야 할 것들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특히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고, 현장에서 만난 회원분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A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회원분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플랫폼노동자와 프리랜서는 근무시간과 장소가 일정하지 않고, 일을 쉬면 소득과 바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이에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진행하는 경우에도 최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얻어갈 수 있도록 교육 내용과 운영 방식을 계속 고민했습니다. 현장에서는 혼자 일하며 경험을 나눌 기회가 적었던 회원분들이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질문하며, 자연스럽게 서로의 동료이자 선후배가 되어가는 모습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Q 플랫폼노동자와 프리랜서는 기존 제도로는 포괄되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들에게 '저축하는 경험'과 '금융·직무교육'이 필요한 이유와, 이 사업을 통해 어떤 변화를 기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A 플랫폼노동자와 프리랜서는 소득이 일정하지 않고 기존의 사회보장이나 금융제도의 보호를 충분히 받기 어려워 미래를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금액이라도 직접 저축해 보며 미래를 준비하는 경험을 쌓고, 금융·직무교육을 통해 자신의 자산을 관리하고 역량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험이 쌓이면 현재의 소득을 안정시키고 앞으로의 선택지를 넓히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스스로 소득과 자산을 관리하고 미래를 계획하며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이 사업을 통해 기대하는 변화입니다.

주거취약계층 주거복지기금 대출지원사업

나눔과 미래

한빛나 차장





Q 간단한 자기소개 및 현재 담당하고 계시는 업무를 소개해 주세요.

A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나눔과미래 지역활성화국에서 일하고 있는 한빛나 차장입니다. 저는 '따뜻한사회주택기금'이라고 하여 사회주택 관련 사회적경제조직 및 사회주택 입주민을 위한 융자사업 및 지원사업, 그리고 주거취약계층 주거복지기금 대출지원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Q 주거취약계층 주거복지기금 대출지원사업은 올해로 2년째 재단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작년과 가장 달라진 지점은 무엇인지, 또 지난 2년간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A 올해 우리 사업은 저소득층에 1%의 상환금리가 책정된 점, 수혜자들께 상환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상환기간이 최대 24개월까지 늘어난 점 등이 달라진 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사업기간 중 '주거공간 컨설팅'을 통해 수혜가구에 직접 방문하여 주거공간에 대해 같이 이야기를 나눠 보고 함께 정리 수납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기회가 되어 의미 있었습니다.

Q 사업 운영 과정에서 참여자 모집이나 상담사 및 수혜자 관리 등 어려움도 있으셨을 텐데, 어떤 점이 어려웠고 어떻게 풀어가셨는지 궁금합니다.

A 우리 사업은 아무래도 대출 후 매월 상환을 받기 때문에 수혜가구에 때로는 따뜻하게, 때로는 냉정하게 응대해야 한다는 점에서 담당자로서 심적 부담이 컸고, 연락이 되지 않는 수혜자로 인하여 애탔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격려해준 동료, 감사 인사를 전해주시는 수혜자분들이 있었기에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본연의 자리에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Q 주거취약계층 주거복지기금 대출지원사업에 참여한 수혜자 가운데, 가장 인상 깊었던 변화 사례가 있다면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A 저소득층 유형으로 선정된, 다리가 불편하신 중년 남성 수혜자가 기억에 남습니다. 기존 주택에서 공동주방을 사용할 수 없어 1평 반 정도의 방에서 취사를 하고 보일러 고장인 방에 유리창이 깨져 종이박스로 붙여놓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주거복지센터를 통해 저희 사업에 연계 되시면서 안전하고 깨끗한 주택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 주거공간 컨설팅을 통해 주택 내부도 깨끗하게 정리가 되면서 그 분의 몸과 마음도 많이 안정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전기기사 자격증을 통해 더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 말씀하셨고, 주거가 안정되어 다른 활동들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시기에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Q 보증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저소득층에게 저금리로 주거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단순한 금융지원을 넘어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특히 이 사업을 통해 수혜자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에 어떤 변화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A 신청부터 상환까지 일련의 과정 속에서 신청자가 본인의 주거 및 재정, 생활 전반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고, 매월 원리금 상환을 통해 본인의 보증금을 확보함으로써 자산 확보, 또는 저축의 개념으로도 이 사업에 의미가 있습니다. 대출상환 완료 후에는 이 사업이 수혜자와 그 가족들에게 삶의 여유를 찾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발판이 되는 디딤돌 역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Q 마지막으로 이 사업을 만나게 될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또한 사업이 오래 이어진다면 어떤 모습이었으면 하는지도 부탁드립니다.

A 앞으로 만나 뵙게 될 분들에게 "우리 사업의 과정이 조금 복잡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앞으로 주거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더 많은 분들의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데 꼭 필요한 역할을 해 나갈 테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라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업이 지속됨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 속에서 살아가며 우리 사회에 주거취약계층이 어려움을 겪는 일이 줄어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 돌봄 공동체 인큐베이팅 사업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정기범 팀장

Q 간단한 자기소개 및 현재 담당하고 계시는 업무를 소개해 주세요.

A 저는 사회적기업 창업 육성과 경영지원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기범 팀장입니다. 초기 창업팀을 발굴하고 이들이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저의 주 업무입니다. 본 지역 돌봄 공동체 인큐베이팅 사업에서는 지난 3년간 실무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매년 새로운 돌봄 공동체들을 발굴해 인큐베이팅 과정을 기획 및 진행하고, 이들이 단순한 모임을 넘어 지역 내 다른 단체들과 협력하며 자생력을 갖춘 사회연대경제 조직으로 안착하도록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고 있습니다.

Q 지역 돌봄 공동체 인큐베이팅 사업은 올해로 3년째 재단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작년과 가장 달라진 지점은 무엇인지, 또 지난 2년간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A 매년 8개 팀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기본 프로세스는 동일하지만, 가장 크게 달라진 지점은 바로 지역 내 확장과 연대입니다. 초기 1년 차에 기틀을 다진 돌봄 공동체들이 지역 내 다양한 단체들과 적극적으로 협업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그 결과 사업 모델이 지역사회에 밀착 적용되었고, 이 과정에서 1기와 2기 팀 간의 자발적인 협업이 일어난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돌봄 공동체가 내부 결속을 넘어 그 공동체성을 외부로 번지게 함으로써, 지역사회 전체의 연대감을 증진하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Q 사업 운영 과정에서 참여자 모집이나 인큐베이팅 관리 등 어려움도 있으셨을 텐데, 어떤 점이 어려웠고 어떻게 풀어가셨는지 궁금합니다.

A 사업 운영에서 가장 난관이었던 점은 공동체 돌봄이라는 개념을 올바르게 정의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개념에 대한 이해가 생소하다 보니 사업의 본래 방향성에 맞춰 참여 팀들을 관리하고 이끄는 데 어려움이 컸습니다. 이를 위해 사업 참여 초기인 탐구 단계부터 공동체 돌봄 정체성 교육을 시행해 기초를 다졌습니다. 더불어 성과공유회 자리에서도 공동체 돌봄의 가치와 의미를 끊임없이 되짚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과정 덕분에 참여자들의 인식이 깊어지고 사업도 의도한 방향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Q 지역 돌봄 공동체 인큐베이팅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에서도 예상하지 못했던 돌봄 사각지대나 사회문제를 인큐베이팅 팀을 통해 새롭게 발견하고 해결한 사례가 있다면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A 푸른팜사회적협동조합의 사례를 꼭 꼽고 싶습니다. 기존 시설 입소조차 어려운 심한 중증 발달장애인들의 돌봄 문제가 매우 심각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푸른팜은 서귀포에 펠롱꽃농장이라는 화훼농장을 열었습니다. 중증 발달장애인에게 화훼농장에서의 직업 교육을 제공하고 직접 고용까지 연계했습니다. 최고의 돌봄은 취업이라는 철학 아래, 이들이 단순 보호를 넘어 지역사회 안에서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자립을 도운 매우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Q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필요한 것은 결국 '지역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생적 구조'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요, 이 사업이 외부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지역 내에서 지속 가능한 돌봄 주체를 키워낸다면 제주 지역사회 전체에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나요?

A 지역 내 자생적 돌봄 주체가 형성되는 것은 단순한 복지 서비스를 넘어 제주의 사회적 자본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됩니다. 외부 지원 없이 주민이 주체가 되어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구조가 정착되면, 단절되었던 지역 공동체성이 자연스럽게 회복되고 더욱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망이 구축됩니다. 공동체 안에서 돌봄이 스스로 이루어질 때, 소외된 이웃이 사라지고 따뜻한 연대 의식이 살아나게 됩니다. 이는 결국 제주 전체가 외부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튼튼하고 지속 가능한 복지 생태계를 갖추게 됨을 의미합니다.

Q 마지막으로 이 사업을 만나게 될 제주 시민들 또는 돌봄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조직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또한 사업이 오래 이어진다면 어떤 모습이었으면 하는지도 부탁드립니다.

A 누구나 돌봄의 주체이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해결하기 힘든 돌봄 문제도 물리적 거리를 넘어 같은 고민을 나누는 이들과 연대한다면 얼마든지 따뜻한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더욱 깊어져, 지리적 경계를 넘어 뜻을 함께하는 다양한 돌봄 공동체들이 촘촘히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공통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서로를 돌보는 문화가 일상화되고, 소외됨 없이 모두가 안심하고 살아가는 지속 가능한 제주의 미래를 함께 그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청년 금융어드바이저 서비스 사업

한국재무설계협회

김수미 사무국장







Q 간단한 자기소개 및 현재 담당하고 계시는 업무를 소개해 주세요.

A 안녕하세요. 청년 금융어드바이저 서비스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사)한국재무설계협회의 김수미 국장입니다. 청년 금융어드바이저 사업에서 수혜자 배정, 상담 진행 관리, 민원, 상담사 관리 등 상담 운영 전반을 맡고 있습니다.

Q 청년 금융어드바이저 서비스 사업은 올해로 3년째 재단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작년과 가장 달라진 지점은 무엇인지, 또 지난 2년간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무엇인가요?

A 올해로 3년 차를 맞아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고도화를 위해 3가지를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첫째, 공공상담의 신뢰성 강화를 위해 '상담정책준수 서약서'를 도입했습니다. 상품 판매 금지 및 상담종료 이후 개별 연락 금지 등 상담정책을 확인함으로써 사고예방 및 공공상담으로서의 가치와 신뢰성을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상담품질 관리를 위해 '상담사 평가제도'를 도입했고, 셋째는 상담 효과를 측정하는 '상담 효과성 설문'을 도입해 상담이 수혜자들의 금융지식과 태도, 행동 향상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으로는 '상담사 간담회-네트워크 포럼'에 참여하신 상담사님들이 주제별로 사례를 나누고 토론하며 서로 존중하고 소통하던 모습입니다. 덕분에 사업에 대한 보람도 느끼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Q 사업 운영 과정에서 참여자 모집이나 상담사 및 수혜자 관리 등 어려움도 있으셨을 텐데, 어떤 점이 어려웠고 어떻게 풀어가셨는지 궁금합니다.

A 참여자 모집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청년 포털 홍보 및 홍보물 우편 발송, 직접 방문 홍보 등을 진행했지만, 올해는 정부 사업인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및 지자체 재무상담 사업 확대 등의 영향으로 예년보다 모집이 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청년 재무상담 사업에 애정을 갖고 함께 성장해 나가고자 하는 상담사님들의 홍보와 먼저 참여한 수혜자들의 적극적인 소개 덕분에 점차 나아지고 있어, 앞으로는 모집도 안정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Q 금융어드바이저 서비스 사업이 입소문을 타면서 재무상담에 참여하는 청년들이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그 중 가장 인상 깊었던 청년의 변화 사례가 궁금합니다. 또한 현장에서 직접 청년들을 만난 상담사분들의 목소리도 함께 들려주세요.

A 생각보다 많은 청년이 부모의 빚을 떠안아 고통받곤 합니다. 이 청년도 부모님의 빚을 갚느라 월급의 2/3를 지출하며 버티다 보니 일상적인 현금흐름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이에 상담을 통해 제도권 안에서 해결책을 찾도록 권유하였고, 다행히 신용회복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부모님의 채무 부담이 경감되었고 청년은 부모님 지원 금액을 줄여서 본인의 자산 형성을 위한 저축 여력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의 부채와 청년의 재무 상태를 명확히 분리하게 되면서 삶의 돌파구와 희망을 찾고 행복해하는 청년의 모습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현장 상담사님들의 의견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는 청년들과의 상담과정을 통해 상담사 스스로도 배우는 점이 많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2,3년째 꾸준히 상담을 이어가는 청년들의 변화입니다. 올바른 금융 습관이 정착되고 자산이 탄탄하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현장의 상담사님들 모두 큰 보람과 확신을 얻는다고 하십니다.



Q 재무상담 유형의 60%가 '재무진단'에 집중됐고, 수혜자 후기에도 자신의 재무 상황을 진단받은 점이 좋았다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이 시대에 청년 재무상담이 꼭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사업을 통해 청년의 금융환경이 어떻게 달라지길 바라시는지도 궁금합니다.

A 교육은 학교에서만 끝나지 않고 사회에서도 지속되어야 건강하게 성장하는 사회가 됩니다. 하지만 지금의 청년들은 금융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 없이 곧바로 사회에 던져지는 실정입니다. 이 시기의 청년들에게 기초 금융지식과 통장 관리법을 알려주고, 투자의 원칙을 세워주어 스스로 건전한 자산을 형성하도록 이끄는 것이 재무상담의 역할이고, 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재무상담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업을 통해서 내실 있는 상담이 꾸준히 이어져, 많은 청년이 금융 취약 상태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Q 마지막으로 이 사업을 만나게 될 청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또한 사업이 오래 이어진다면 어떤 모습이었으면 하는지도 부탁드립니다.

A 현재 나의 경제적 상황이 좋든 나쁘든, 정기검진을 받듯 매년 꾸준히 상담을 받아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재무현황을 객관적으로 마주하는 것만으로도 건전하게 자산을 형성해 나갈 수 있는 든든한 뼈대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이 사업이 오래도록 이어져 취업, 결혼, 출산 등 수많은 변화와 선택의 기로에 선 청년들이 경제적인 고민이 생겼을 때 찾아갈 수 있는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필요할 때 언제 어디서는 재무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소중한 사업이 더욱 확대되고 지속되기를 기대합니다.

일자리

마음에 닿은 기회는,

일자리는 단순한 소득을 넘어 삶을 변화시키는 출발점입니다.
금융산업공익재단은 취업과 창업, 직업훈련, 경력 형성의 기회를 통해
누구나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지속 가능한 소득 기반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함께하고 있습니다.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넘어 사람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며 지속 가능한 자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금융산업공익재단이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내일을 살아갈 힘이 됩니다.

총 사업비

3,210,463,981 원

총 수혜자

94,854 명

총 수혜기관

학교	비영리조직	연구시스템 구축
254 개교	73 개	1 건

희망의 가능성을 열다 ····· 일자리 연계

환경과 여건의 차이가 꿈의 크기를 결정하지 않도록 재단은 사람에게 필요한 기회를 열어갑니다.
청년과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비정규직 등 다양한 사람들이 취업과 창업, 직업훈련, 경력 형성의
기회를 통해 자신의 역량을 펼치고 새로운 일과 자립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고 있습니다.

직업 역량 강화 참여 인원	취업 연계 인원	문화예술 분야 지원 인원	창업 연계 인원
5,861 명	695 명	73 팀	36 명

희망의 터전을 만들다 ····· 소득창출

지속가능한 자립은 사람을 넘어 지역과 공동체의 성장으로 이어집니다.
재단은 지역의 자원과 사람을 연결해 스스로 소득을 만들어 가는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사회가 오래도록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변화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소득 창출 지원 인원	주민소득 증가율	자원 처리 연간 소득가치 환산액
5,853 명	72 %	3 천만 원 규모

일자리 연계

마음이 닿은 곳, **희망**이 피어나다

채무조정 미취업청년 취업촉진·신용상승 지원사업

너, 나, 우리 WeTube 프로젝트

비장애 청년과 발달장애인 일자리 학교: 스타트업 밸리

산업단지 현장개선 프로젝트: 청년일터 디자인랩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 소득 및 경력증명 지원사업

캄보디아 쏭큼 직업훈련센터 지원사업

필리핀 파야타스 직업훈련센터 지원사업



채무조정 미취업청년 취업촉진·신용상승 지원사업

수행기관 신용회복위원회

세부 프로그램

· **신용상승 지원**
신용복지컨설팅(신용도우미, 신용컨설팅) 제공을 통한 신용관리 교육 제공, 신용점수 상승 시 신용개선격려금 지원

· **취업·자영업 컨설팅 지원**
1:1 맞춤형 취업컨설팅 및 일자리 알선 서비스, 직업훈련지원금 및 면접비, 예비 창업자·기창업자 대상 자영업 컨설팅 제공

· **수기공모전 개최**
'23~'25년 사업 참여자 대상 사업 참여 후기 및 희망의 메시지 등 수기공모전 실시

수혜자 후기

채무조정 미취업청년 취업촉진·신용상승 지원사업은 저처럼 외로운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청년들이 지치지 않도록 실질적인 관심과 혜택을 주는 든든한 지원군이었습니다. 올바른 소비 습관을 지키며 채무를 성실히 상환하자 신용점수가 조금씩 상승했고, 신용점수가 오를 때마다 삶의 자존감도 함께 높아졌습니다. 만약 채무조정 이후 이 지원사업을 만나지 못했다면 여전히 취업의 벽 앞에서 좌절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무너진 신용과 삶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실질적인 발판과 용기를 마련해주신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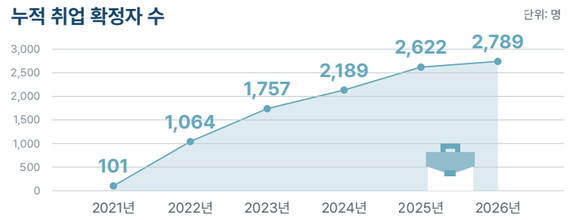
파트너기관 담당자 후기

채무라는 어두운 그늘에 가려져 미래를 꿈꾸기조차 어려웠던 청년들에게 지원사업은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특히 처음에는 자신의 가능성을 믿지 못했던 청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하는 모습을 보며, 이 사업이 한 사람의 삶에 얼마나 절실하고 소중한 기회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늘 청년들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고, 청년들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재단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김하늘 선임심사역

Since 2021

누적 취업 확정자 수 단위: 명



사업비
983,944,000 원

수혜자
4,382 명





너, 나, 우리 WeTube 프로젝트

수행기관 방송작가유니온

세부 프로그램

· 공모 및 영상제작 지원
사회문제를 주제로 공익영상 공모를 통해 제작팀 선정 및 창작지원금과 멘토링을 지원하여 공익이슈 확산

· 영상 공모전 페스티벌
우수작 심사 및 시상, 영상상영회를 통해 공익영상 확산과 창작자 네트워킹 지원

수혜자 후기

지난해 위튜브 프로젝트에서 「레벨업: 자립준비청년들의 어른수업」으로 대상을 받은 한유진입니다. 19년간 방송작가로 활동하며 처음으로 제가 만들고 싶은 이야기를 온전히 제 시선으로 담아낼 수 있었습니다. 자립준비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필요한 이야기를 고민하며 만든 이 작품은 제게 더욱 뜻깊은 의미로 남았습니다. 금융산업공익재단의 지원 덕분에 공익적 주제를 자유롭게 창작하고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작품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소중한 기회를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파트너기관 담당자 후기

2년간 진행된 위튜브 프로젝트는 미디어 산업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비정규직 종사자들에게 새로운 기회이자 희망이었습니다. 참여자들은 자신이 만들고 싶은 공익 콘텐츠를 자유롭게 제작하며 자존감과 자신감을 회복하고, 일자리와 수입, 네트워크까지 얻을 수 있었습니다. 참여자들의 감사와 재참여 의사를 들을 때마다 큰 보람을 느꼈으며, 우리 사회에 필요한 공익의 이야기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해주신 금융산업공익재단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방송작가유니온 염정열 지부장

Since 2024

공모전 영상 조회수 및 제작 편수

사회공익 영상 제작 편수		제작 공익영상 조회수	
2024년	2025년	2024년	2025년
52개	65개	47,006회	141,180회

사업비
346,520,000원

수혜자
73팀

비장애 청년과 발달장애인 일자리 학교: 스타트업 밸리

수행기관 소셜혁신연구소

세부 프로그램

· 협동조합 창업 A to Z 이노스쿨
비장애 청년 및 발달장애 예술인 대상 협동조합형 소셜벤처 창업 기초 교육

· 청년-발달장애 예술인 창업 레지던시
비장애 청년 및 발달장애 예술인 레지던시 구성, 창업 아이템 개발 및 사업화 등 창업을 위한 실무 교육 및 컨설팅 지원

· 임팩트 그라운드
협동조합 설립 및 사업확장 지원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IR피칭, 데모데이, 네트워킹 등 후속 운영 지원

수혜자 후기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평소 지나쳤던 일상의 모습과 감정을 그림으로 표현하며, 제 생각과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자신감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을 찾고 저만의 방식으로 표현하며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경험도 의미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그림을 그리며 저만의 색깔을 가진 작가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파트너기관 담당자 후기

교육 일정 관리, 참여자 상담·출결 관리, 컨설팅 운영 등 다양한 실무를 담당하며 참여자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여러 상황을 조율하는 일이 쉽지는 않았지만, 참여자들이 교육을 통해 성장하고 팀별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나가는 모습을 보며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특히 청년과 발달장애 예술인이 함께 협업하고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을 지원할 수 있어 더욱 의미 있었습니다.

- 소셜혁신연구소 신혜림 주임연구원



사업비
110,000,000원

수혜자
36명





산업단지 현장개선 프로젝트 : 청년일터 디자인랩

수행기관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Industry-Academic Collaboration Foundation

세부 프로그램

- **대전 산업단지 현장탐방 및 문제발굴**
  청년 대상 산업 현장 탐방을 통한 기업 현안 및 문제 발굴
- **문제정의 워크숍 및 아이디어톤**
  현장 문제 기반 워크숍 및 아이디어톤을 통한 해결 방안 도출
- **파일럿 실행 프로젝트**
  참여기업별 파일럿 프로젝트 8주간 운영 및 멘토단·기업 협업을 통한 현장 적용 가능성 검증
- **성과 공유 및 확산**
  프로젝트 결과 발표 및 우수사례 공유를 통한 성과 확산

수혜자 후기

대학생 신분으로 대전 산업단지 내 기업들을 직접 방문하고 현장 관계자들과 소통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막막했지만, 직접 부딪히며 생각보다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고 대학생 시절에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정말 값진 일이었습니다.

파트너기관 담당자 후기

정해진 성과보다 수혜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참여자들도 단순한 사업의 대상이 아닌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동료처럼 느껴졌습니다. 결과만큼 과정과 관계가 오래 기억에 남는 의미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 충남대 산학협력단 이건하 매니저



사업비
105,000,000 원

수혜자
37 명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 소득 및 경력증명 지원사업

수행기관 한국플랫폼 프리랜서 노동공제회 KWMF

세부 프로그램

- **소득활동·경력증명 제도화 및 활용방안 연구**
  국내외 사례 분석 및 금융 실태조사를 통한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소득활동 증명 모델·서비스 설계
- **소득활동·경력증명 시스템 구축**
  소득·경력·자격 정보의 통합 관리를 위한 민관 플랫폼 연계 디지털 시스템 구축
- **소득활동·경력증명 시범사업**
  프리랜서 강사 등 주요 직종 대상 단계적 시범 운영을 통한 시스템 실효성 검증

파트너기관 담당자 후기

소득을 증명할 수 없어 차가운 대출 문턱 앞에서 발길을 돌려야 했던 날들. 지난 시간을 증명하려 이 기관 저 기관을 헤매도 답을 얻지 못했던 막막함. “아이를 맡겨야 일을 하는데…” 맞벌이 증빙조차 어려워 발을 굴렀던 프리랜서들의 눈물겨운 호소는 오랫동안 세상의 그늘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깊은 절망 끝에서 손을 잡아준 곳이 있었습니다. 금융산업공익재단의 따뜻한 지원 덕분에 마침내 이들의 삶을 증명해 줄 시스템을 세상에 틔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늘진 곳에서 홀로 견디던 비정형 노동자들의 삶에 작지만 커다란 희망의 빛을 비춰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현필화 단장



사업비
300,000,000 원

성과
연구시스템 구축
1 건





캄보디아 쏭큼 직업훈련센터 지원사업

수행기관 더좋은세상

세부 프로그램

- **네일·미용 직업 전문화 과정**
  네일과 미용 전문기술 교육이수 지원 및 취·창업 연계를 통한 직업 역량 강화
- **병뚜껑 업사이클링 프로젝트**
  업사이클링 제품 제작·판매 등 기술 훈련을 통한 소득 창출 지원 및 창업 역량 강화
- **경제 역량 강화 캠프**
  취약계층 청년 대상 금융교육을 통한 경제적 자립 역량 강화

수혜자 후기

저는 당카오 쓰레기 마을에서 태어나 자라며 쓰레기를 줍는 일 외에는 다른 미래를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마약 중독과 어머니의 질병으로 열네 살에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교육을 받는 동안 수입이 줄어 망설이기도 했지만, 황규철 선생님의 격려로 처음 꿈에 도전했습니다. 낮에는 쏭큼 센터에서 배우고 밤에는 쓰레기를 주우며 버텼습니다. 정말 힘들지만 "나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버티고 있습니다. 이제는 멋지게 자립해 가족을 지키고, 저처럼 꿈꾸지 못했던 아이들에게도 새로운 길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파트너기관 담당자 후기

처음 이 사업을 기획했을 때는 '과연 가능할까' 하는 걱정과 의구심이 컸습니다. 준비와 실행 과정에서도 예상치 못한 변수와 우여곡절로 힘든 순간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루 1달러 안팎으로 살아가던 당카오 쓰레기 마을 주민들이 직업교육을 통해 기술을 익히고,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자존감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며 모든 어려움이 의미 있는 한 걸음으로 느껴졌습니다. 한 사람의 꿈이 자립으로 이어지고 그 변화가 가족과 이웃에게 전해지는 모습을 보며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이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 피피엘 이동건 매니저



사업비
150,000,000 원

수혜자
105 명

필리핀 파야타스 직업훈련센터 지원사업

수행기관 UNI global union asia & pacific

세부 프로그램

- **직업훈련 및 생계지원 프로그램**
  컴퓨터, 재봉, 뷰티 등 직업기술교육을 통한 취·창업 역량 강화
- **생활지원 프로그램**
  요리, 향수 제작 등 소득 창출을 위한 생활지원 프로그램 운영
- **사회적기업 등록 및 센터 자립 지원**
  직업훈련센터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현지 사회적기업 등록 및 자립 기반 마련

수혜자 후기

파야타스 직업훈련센터에서 재봉기 조작 및 생계지원 교육에 참여하며 단순한 기술 습득을 넘어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얻었습니다. 교육을 통해 익힌 기술로 베개 커버와 침대 시트 등 재봉 제품을 제작·판매하고, 작은 가게도 운영하며 가족의 생계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파야타스 직업훈련센터와 금융산업공익재단의 따뜻한 지원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이번 기회는 삶의 전환점이 되었으며, 앞으로도 배운 기술을 바탕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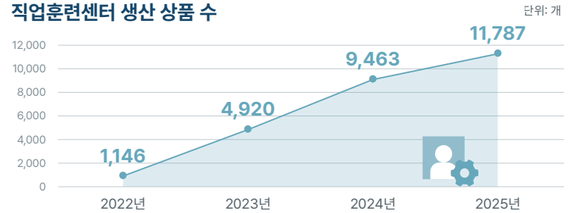
파트너기관 담당자 후기

파야타스 직업훈련센터는 기술교육을 넘어 주민의 자립과 지역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직업훈련과 생계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왔습니다. 금융산업공익재단의 지원을 바탕으로 재봉, 식품가공, 디지털 교육 등을 통해 주민들이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했으며, 교육을 통해 기술을 익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사례도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자립과 희망을 위한 지속가능한 기회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UNI-APRO 최정식 총장

Since 2022

직업훈련센터 생산 상품 수



사업비
134,999,981 원

수혜자
751 명

소득창출

마음이 닿은 곳, **희망**이 피어나다

스리랑카 지역기반 여성자립·학교급식 사업

인도네시아 생활쓰레기 처리를 통한 주민소득증대 사업



스리랑카 지역기반 여성자립·학교급식 사업

수행기관 WFP World Food Programme 유엔세계식량계획

세부 프로그램

· **여성 영농인 양성**

마탈레·모네라갈라 지구 내 소규모 농가 및 여성 영농인 대상 가계소득 증대와 지역 농산물 활용 학교급식 제공을 위한 영농·양계 훈련 프로그램 제공

· **학교급식 지원**

초등학생 대상 지역농산물 활용 아침급식 제공을 통하여 취약지역 아동 영양상태 개선

수혜자 후기

예전에는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망치고, 식재료를 사러 15km 떨어진 시장까지 가야 했습니다. 남편이 콜롬보에서 일하는 동안 두 아이와 농장까지 책임지는 일이 막막했지만, WFP의 물탱크와 스프링클러, 종자 및 농업 교육 지원으로 계절에 상관없이 채소와 과일을 수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신선한 재료로 매일 60명의 아이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고, 남은 농산물은 판매해 가족의 생활과 아이들 교육에도 보탤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과 지역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파트너기관 담당자 후기

금융산업공익재단의 지원으로 WFP는 스리랑카 두 개 지방정부에서 지역기반 학교급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농가가 생산한 신선한 채소와 달걀을 학교급식에 활용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학습을 돕고, 학교급식과 지역 농업을 연계해 지역경제와 국가 학교급식 체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 급식 제공자와 영세 소농의 소득 안정과 자립을 지원하며,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뜻깊은 사업을 지원해주신 금융산업공익재단에 감사드립니다.

- WFP 한국사무소 최우석 팀장

Since 2025

농가 소득 증가율·아동 식이다양성 개선율

농작물 및 계란 생산 지원 농가 월 소득 증가

마탈레 지역 지원 전 대비	모나라갈라 지역 지원 전 대비	아동 식이다양성 기준 충족
86% 증가	38% 증가	77% 개선

사업비

600,000,000 원

수혜자

학생	여성영농인	학교
53,000 명	3,660 명	254 개



인도네시아 생활쓰레기 처리를 통한 주민소득증대 사업

수행기관 굿네이버스 글로벌 임팩트

세부 프로그램

- **지역사회 쓰레기 분리배출 및 재활용 인식개선 교육**
  지역 보건소 및 마을 주민, 학교 교사, 학생 대상 쓰레기 분리수거 및 환경교육·캠페인 실시
- **고형/생활쓰레기 분리수거 시스템 확대 및 지역주민 부가 소득 창출 지원**
  재활용쓰레기 분리·수거 시스템 구축을 통한 쓰레기 은행 조합 운영 지원 및 고형/생활쓰레기 판매수익 지역주민 환원
- **유기 쓰레기 처리 사업 운영 안정화 및 현지 인력 육성**
  동애등에 사육/가공 기술 고도화를 통한 친환경적 음식물쓰레기 처리 모델 구축 및 현지 전문인력 양성과 영세 농가 육성 지원

수혜자 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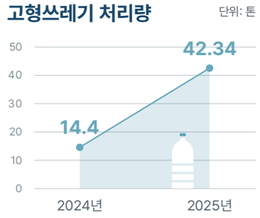
예전에는 집에 쓰레기가 많이 생기면 집만 깨끗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그냥 버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페트병이나 다시 활용할 수 있는 물품을 따로 수거해서 마을 보건소에 가져가 팝니다. 남편이 어부라 수입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쓰레기를 모아 얻은 돈이 많지는 않아도 가정에 보탬이 되고 조금씩 저축할 수 있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이에게도 "페트병을 버리지 말고 잘 보관하자"고 가르치며 좋은 습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작은 실천이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만드는 변화로 이어지고 있어 기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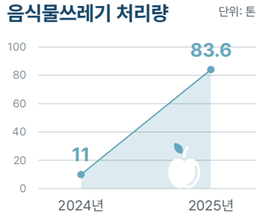
파트너기관 담당자 후기

지난 2년간 인도네시아에서 Waste Bank과 동애등에를 통해 생활쓰레기를 주민의 소득원으로 전환하며, 환경문제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지만, 기술 제공을 넘어 주민이 스스로 주도하고 자립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이번 경험이 지역사회가 환경문제를 직접 해결하고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지속가능한 모델로 발전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 굿네이버스 글로벌임팩트 김지연 수석매니저

Since 2024





사업비
480,000,000 원

수혜자
32,883 명

너, 나, 우리 wetube 프로젝트

방송작가유니온

염정열 지부장



Q 간단한 자기소개 및 현재 담당하고 계시는 업무를 소개해주세요.

A 안녕하세요. 방송작가유니온 지부장이자 27년째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방송작가 염정열입니다. <너, 나, 우리 wetube 프로젝트>에서 공모전 기획부터 참여자 모집· 심사, 제작 지원, 시사와 시상식까지 사업 전반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Q 너, 나, 우리 wetube 프로젝트는 올해로 3년째 재단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업 운영 과정에서 참여자 모집이나 심사, 영상 시사 등 어려움도 있으셨을 텐데, 어떤 점이 어려웠고 어떻게 풀어가셨는지 궁금합니다.

A 지난해에는 예상보다 많은 분이 지원해 주셔서 서류 심사부터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당초 3일로 예정했던 심사 기간을 이틀 연장할 만큼 심사위원들도 선정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단순히 영상 제작 능력만 평가하기보다, 작품이 실제 영상으로 완성됐을 때 어떤 사회적 메시지와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중요하게 살폈습니다. 특히 위튜브 프로젝트의 핵심 가치인 '공익성'을 중심으로 작품성, 기획력,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며, 심사위원들과 충분히 의견을 나누고 논의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 선정작을 결정했습니다.

Q 너, 나, 우리 wetube 프로젝트가 방송업계에 알려지면서 공모전 경쟁률도 높아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중 가장 인상 깊었던 영상이나 사례, 현장에서 만난 비정규직 미디어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A 1·2회 모두 좋은 작품이 많았지만, 특히 지난해 대상작 <레벨업>이 기억에 남습니다. 시상식에서 작품을 상영했을 때 많은 분이 공감과 감동을 전해주셨고 참여자들이 "다시 영상을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됐다"고 이야기하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지난 두 차례 사업을 통해 선정된 15편은 K-TV에서 방송·재방송되었으며, 자신의 작품이 시청자들과 만나는 경험은 참여자들에게 큰 의미가 되었습니다. 방송을 본 다른 비정규직 미디어 노동자들이 "다음에는 꼭 참여하고 싶다"고 말하는 모습을 보며 사업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Q 공모전을 통한 소득 창출과 자기 의지로 만들어 가는 공익 영상 제작 경험이 비정규직 미디어 노동자의 성장뿐 아니라, 미디어 업계가 비정규직 노동자를 바라보는 시선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시나요? 이 사업이 장기적으로 미디어 산업에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 참여자들이 위튜브 프로젝트를 통해 가장 크게 느끼는 변화는 '자존감 회복'과 '성장', 그리고 자신의 콘텐츠로 공익적 가치를 전달했다는 경험입니다. 직접 기획하고 촬영·제작하며 자신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과정 자체가 새로운 도전이자 즐거운 경험이었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자신의 영상이 K-TV를 통해 방송되면서 비정규직 미디어 노동자들도 충분한 기회가 주어진다면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경험이 쌓이면 비정규직 노동자를 단순한 보조 인력이 아닌 창작의 주체이자 전문성을 가진 동료로 바라보는 인식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나아가 참여자의 성장과 역량 강화가 양질의 콘텐츠 제작과 공익적 메시지 확산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드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Q 마지막으로 이 사업을 통해 비정규직 미디어 노동자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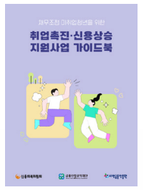
A 비정규직 미디어 노동자들은 방송사나 제작사의 이름 뒤에 가려져도 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미디어 산업을 움직이는 중요한 창작자이자 노동자입니다. 비정규직이나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쉽게 대체될 수 있는 '소모품'도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는 각자의 경험과 시선, 그리고 세상에 들려줄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 나, 우리 wetube 프로젝트>가 그 이야기를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작은 무대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이 만든 한 편의 영상이 누군가에게 새로운 생각을 전하고, 세상을 조금씩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채무조정 미취업청년 취업촉진·신용상승 지원사업

신용회복위원회

김하늘 선임 심사역





Q 간단한 자기소개 및 현재 담당하고 계시는 업무를 소개해 주세요.

A 안녕하세요. 신용회복위원회 신용상담부 김하늘 선임 심사역입니다. 저는 현재 금융산업공익재단 함께 운영 중인 채무조정 미취업청년 취업촉진·신용상승 지원사업을 담당하고 있으며, 신용복지컨설팅 지원 등 채무조정 이행자 분들의 실질적인 재기를 돕기 위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Q 채무조정 미취업청년 취업촉진·신용상승 지원사업은 올해로 6년째 재단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첫해와 견주어 지금의 사업은 무엇이 가장 달라졌을까요?

A 6년간 사업을 이어오면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사업 운영이 한층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다는 것입니다. 초기에는 사업의 틀을 만들고 운영 기반을 갖추는 데 집중했다면, 지금은 그동안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참여 과정 전반을 보다 원활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만족도 조사를 통해 참여자가 실제 이용 과정에서 느끼는 불편이나 개선 필요사항을 확인하고, 이를 다음 사업 운영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사업이 해마다 조금씩 더 다듬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Q 채무조정 이행과 구직을 병행하는 청년들이 약 1년이라는 사업기간 동안 꾸준히 참여하기가 쉽지 않았을텐데요, 중도에 포기하지 않도록 특히 신경 쓰신 부분은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A 채무조정 이행과 취업 준비를 함께 해야 하는 청년들에게는 사업 참여 자체가 또 하나의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참여자가 현재 진행 단계와 앞으로 해야 할 일을 놓치지 않도록 안내하는 데 신경 썼습니다. 사업 진행 단계에 맞춰 알림톡을 발송하고, 필요한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가이드e북도 제공했습니다. 신용개선격려금, 직업훈련지원금 등을 수령하기 위한 미션들을 하나씩 완료하며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꾸준한 참여를 이끄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Q 올해는 3~4차년도 참여자를 대상으로 수기공모전을 열고 얼마 전 시상식까지 마치셨습니다. 많은 참여자분들이 보내온 이야기 가운데 담당자로서 가장 마음에 남은 사연은 무엇이었나요? 또한 시상식 현장에서 청년들을 직접 만난 소회도 함께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A 130편의 수기를 읽으며 인상적이었던 것은 단순히 신용상승, 취업성공 등 결과 자체보다 그 과정에서 나타난 변화의 모습이었습니다. 취업에 다시 도전하고, 소비와 저축 습관을 바꾸고,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 사연들이 모두 기억에 남습니다. 그중 하나를 꼽자면, 낮은 신용점수와 반복되는 자격시험 탈락에도 지원사업을 발판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 결과, '피부관리사'라는 본인의 오랜 꿈을 이뤄낸 참여자의 사연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또한, 시상식 현장에서 글로만 접했던 청년들을 직접 대면하면서 수치로 보던 사업 성과가 각자의 삶에서 직접 만들어낸 변화라는 점을 더욱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Q 사업 참여 후기에 '다시 시작할 수 있겠다는 용기가 생겼다'라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른 나이에 채무조정을 겪은 청년에게 신용점수의 회복이 갖는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 청년들에게 신용점수의 회복은 단순히 숫자가 올라가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채무 문제를 겪으면 금융거래의 제약뿐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까지 낮아지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채무조정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신용을 다시 쌓아가는 경험은 '나도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 회복이 취업과 자산형성, 안정적인 금융생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경제적 자립을 위한 하나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Q 마지막으로 채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A 채무 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더라도, 지금의 상황만으로 자신의 가능성을 판단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하고 신용을 관리하며 취업과 자립을 준비하는 과정에는 분명 시간이 필요하지만, 작은 변화가 쌓이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집니다. 이번 수기 공모전을 통해서도 막막했던 시기를 지나 자신의 삶을 회복해 나간 많은 청년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혼자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 이용할 수 있는 제도와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자신만의 속도로 한 걸음씩 나아가셨으면 합니다.



인도네시아 생활쓰레기 처리를 통한 주민소득증대 사업

굿네이버스 글로벌임팩트

김지연 수석 매니저

Q 간단한 자기소개 및 현재 담당하고 계시는 업무를 소개해 주세요.

A 안녕하세요. 굿네이버스 글로벌임팩트에서 인도네시아 생활쓰레기 처리를 통한 주민소득증대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김지연 수석 매니저입니다. 현지 사업팀과 함께 주민 대상 쓰레기 분리배출 교육, 폐기물 수거·재활용 체계 구축, 유기폐기물 자원화 사업 등을 기획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 성과를 점검하고 현지 기관 및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Q 지난 3년간 인도네시아 메단 지역의 마을 학교와, 보건소에서 환경교육과 쓰레기 분리배출 활동을 진행하셨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체감하신 주민들의 인식 변화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A 사업 초기에는 쓰레기를 종류별로 분리해서 배출해야 한다는 인식이 낮고, 분리배출 방법도 익숙하지 않은 주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학교와 보건소를 중심으로 교육을 반복하고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지속하면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가정에서 부모에게 전달하거나, 주민들이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를 따로 모아 배출하는 모습이 늘어난 점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Q 마을 쓰레기 은행을 중심으로 주민들이 모은 쓰레기가 판매를 거쳐 소득으로 창출되는 시스템을 만들어 오고 계시는데요, 그 과정에서 가장 고민이 깊었던 지점은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A 가장 고민이 컸던 부분은 주민들의 참여를 일회성으로 끝내지 않고 지속적인 습관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재활용품을 판매해 소득을 얻는 것도 중요한 동기이지만, 가격이 낮아지거나 수거 일정이 달라질 경우 참여가 감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보상을 제공하는 것보다 분리배출의 필요성을 꾸준히 설명하고, 주민 스스로 쓰레기은행을 운영할 수 있는 체계와 역할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Q 유기폐기물 처리를 위한 동애등에 사업이 현지에 자리 잡기까지 예상치 못한 변수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점이 가장 어려우셨는지, 또 안정적으로 이어가기 위해 무엇에 중점을 두셨는지 궁금합니다.

A 동애등에를 활용한 유기폐기물 처리는 온도와 습도, 먹이의 상태 등 여러 환경조건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예상과 다른 상황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특히 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폐기물의 종류와 수분 함량이 일정하지 않아 사육 효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현지 담당자들과 지속적으로 사육 데이터를 확인하고 먹이 배합과 관리 방법을 조정하면서 현장에 적합한 운영 방식을 하나씩 찾아가고 있습니다.

Q 올해부터는 메단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유기폐기물 자원화 사업의 인턴십 프로그램도 새롭게 시작하는데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이 어떤 경험을 얻어가길 기대하시나요?

A 이번 인턴십을 통해 청년들이 단순히 환경교육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유기폐기물이 실제로 자원과 사업 기회로 전환되는 전 과정을 경험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수거부터 동애등에 사육, 생산물 활용, 사업 운영까지 직접 참여하면서 순환경제를 현장에서 이해하고, 환경문제 해결이 새로운 일자리와 창업의 기회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했으면 합니다.



Q 마지막으로 이 사업이 메단 지역사회의 환경과 주민들의 삶에 어떤 자리로 남기를 바라시는지 자유롭게 말씀해 주세요.

A 이 사업을 통해 가장 바라는 변화는 주민들이 쓰레기를 단순히 버려야 하는 것으로 보지 않고, 다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리배출과 재활용이 생활 속 자연스러운 습관으로 자리 잡고, 이를 통해 마을 환경이 깨끗해지는 동시에 주민들에게 작은 소득과 새로운 경제적 기회도 생겼으면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외부 지원 없이도 지역사회가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폐기물 관리 체계가 남기를 바랍니다.

미래세대

마음을 울린 배움은,

미래를 바꾸는 가장 큰 힘은 오늘의 배움과 경험에서 시작됩니다.
금융산업공익재단은 아동과 청소년, 청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문화, 인권, 자립을 아우르는 다양한 기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배움과 경험이 미래를 살아갈 힘이 될 수 있도록
금융산업공익재단은 미래세대의 성장을 응원합니다.

미래의 희망으로 자라납니다.

총 사업비

2,495,328,507 원

총 수혜자

25,236 명

총 수혜기관

지역아동센터 **1,200** 개

비영리조직 **6** 개

희망의 씨앗을 심다 — 시민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인권·문화다양성·지속가능성의 가치를 배우고,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는 힘을 길러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시민으로 성장합니다.

시민역량 교육 참여 인원
22,077 명 | **6** 개 기관

교육콘텐츠 개발 수
15 종
* 인권, 문화다양성, 지속가능경제 등

사회적 인식·태도 개선도
26.7 % 상승

희망의 마음을 보듬다 — 정서자립

학교 밖 청소년과 은둔·고립 청년이 세상과 다시 연결되어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돕고,
문화예술활동을 통해 자신의 꿈과 가능성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갑니다.

사회적 관계 회복 및 정서자립 지원
616 명

청년 창작 활동 지원
59 명

미래세대 육성

마음이 닿은 곳, **희망**이 피어나다

지역아동센터 다문화교육 사업
청소년 ESG 이노베이터 양성교육 사업
미래세대를 위한 인권교육 사업
필리핀 빈곤지역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지원사업
은둔고립청년 통합 지원사업
손편지 상담 기반 자립준비청년 정서자립 지원사업
2030 청년영화제



지역아동센터 다문화교육 사업

수행기관 CJ 나눔재단

세부 프로그램

- **문화다양성 교사 양성교육**
  전국 지역아동센터 교사 대상 온/오프라인 문화다양성 공통·심화 교육 및 교구재 활용법 교육 진행
- **전국 지역아동센터 문화다양성 프로그램**
  문화다양성교육 보드게임과 영상자료를 활용한 문화다양성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온·오프라인 종결식**
  문화다양성 프로그램 진행 성과를 바탕으로 사업결과 공유 및 효과성 발표 진행

수혜자 후기

저는 사실 다문화가정의 아이라 어릴 때부터 '문화다양성'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서 '나는 이미 다문화에 대해 잘 알고 있는데..'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번 활동에 참여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문화가 있고, 그만큼 재미있는 문화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정말 특별하고 소중한 시간이었고, 덕분에 세상이 더 넓고 재미있는 곳이라는 것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으로 저희에게 더 많은 세상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파트너기관 담당자 후기

1,800여 곳의 지역아동센터와 1,800여 명의 선생님, 그 안에서 꿈을 키워온 3만여 명의 아이들을 만나며 사업이 만들어가는 변화와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올해로 2년째 사업을 담당하며,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워하던 선생님들이 교육을 통해 스스로의 변화를 발견하고 아이들의 성장을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며 프로그램의 가치를 실감했습니다. 말 그대로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공감이 자기 긍정과 이해에서 더 나아가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 사회의 포용과 공존을 위한 힘으로 이어지리라 믿습니다.

- CJ나눔재단 제갈효현 매니저

Since 2023

다양성 인식 개선도(교사 및 아동)

2023년		2024년		2025년	
교사	아동	교사	아동	교사	아동
사전 3.33	사전 3.13	사전 3.47	사전 3.07	사전 3.72	사전 3.39
사후 3.53	사후 3.31	사후 3.63	사후 3.28	사후 3.82	사후 3.54

사업비
999,924,694 원

수혜자
인원 19,954 명
지역아동센터 1,200 개





청소년 ESG 이노베이터 양성교육 사업

수행기관 아름다운커피

세부 프로그램

- **지속가능경제교육 단·장기 교육**
  실천형 지속가능경제교육 커리큘럼 기반 장·단기 교육 운영
- **지속가능경제 프로젝트 운영**
  장기 교육 참여자 대상 지역 기반 지속가능 프로젝트 기획 및 실행 지원
- **프로젝트 성과 공유 및 확산**
  연합공유회 개최 및 교육 프로젝트 성과의 지속적 공유·확산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수혜자 후기

지속가능경제학교에 참여하기 전에는 사회문제는 특별한 사람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과 주변의 문제를 찾고 해결책을 모색하며, 나도 변화를 만드는 데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물건을 사고 버리는 선택이 사람과 사회, 환경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한 번 더 생각합니다. 프로젝트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친구들과 함께하면 아이디어를 실제 변화로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도 얻었습니다. 무엇보다 나의 작은 실천이 세상을 바꿀 수 있고, 이런 노력들이 쌓이면 사회도 달라질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파트너기관 담당자 후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청소년 한 명의 변화가 또래와 가족, 학교와 지역사회로 이어지는 과정이었습니다. 청소년들은 생산·소비·노동·폐기 과정의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책을 기획·실행하며, 자신도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임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참여 청소년 한 명이 평균 19.6명에게 지속가능한 가치를 전한 것처럼, 교실에서 시작된 배움은 또 다른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금융산업공익재단의 지원은 청소년이 지속가능경제시민으로 성장하는 든든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 아름다운커피 이혜란 그룹장

Since 2024

청소년 지속가능성 역량 향상도

감수성 형성 생산자·노동 환경 관심도		실천 체화 미래·지역 고려 가치 소비		변화의 주체 가치 전파
2024년	2025년	2024년	2025년	청소년 1인당
33%	83%	35.9%	76.2%	주변 19.6명 에게

사업비
326,100,000 원

수혜자
2,123 명

미래세대를 위한 인권교육 사업

수행기관 인권재단 사람

세부 프로그램

- **인권단체 교육 역량강화 단체 모집·선발**
  AI·이주/난민·기후정의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권단체 모집 및 선발
- **인권단체 교육 역량강화 지원**
  교육 및 멘토링을 통한 인권단체 교육 기획·운영 역량 강화 및 파일럿 교육 실시
- **미래세대 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6개 인권단체의 성과물을 바탕으로 '미래세대 인권 이슈' 교육 시리즈 기획, 운영
- **미래세대 교육 콘텐츠 제작**
  교육 참여자 이외 청소년 및 청년, 교사, 일반 시민도 이용할 수 있는 '미래세대 인권 이슈' 교육 시리즈 콘텐츠 제작

수혜자 후기

성소수자 인권을 주제로 교육과 전시를 진행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고, 전 과정에서 세심하게 소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여자와 강사, 관람객이 함께 AI를 배우고 질문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기술이 발전할수록 사람의 비판적 사고와 통찰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AI가 보여주는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큰 보람을 느꼈고, 이러한 배움과 변화가 이번 사업에 머물지 않고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파트너기관 담당자 후기

금융산업공익재단의 지원 덕분에 다양한 의제와 방식의 인권 교육을 시도하며 우리 사회의 인권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세부적인 실무에 집중해 본래의 취지와 목표보다 실행 자체에 무게가 실리지만, 재단 사업 기획팀에서는 사업 전반의 교육 목표와 방향을 함께 점검해 주시며 사업의 취지를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 인권재단 사람 김경희 팀장



사업비
200,000,000 원

수혜자
6 기관





필리핀 빈곤지역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지원사업

수행기관 굿네이버스

세부 프로그램

- **Good Core: 사회적 자립 지원**
  생활 기술, 심리 정서 지원 및 금융 문해력·재정 관리 교육 운영
- **Good Career: 경제적 자립 지원**
  정부 산하 기술훈련기관(TESDA) 연계 콜센터 직무 교육 이수 지원
- **Good Connect: 취업 연계 지원**
  직업훈련센터(LTST) 연계 콜센터 실습 인턴십 및 멘토링을 통한 취업 연계 지원

수혜자 후기

사업의 현지 담당자로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기회의 길을 열어주신 금융산업공익재단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제공된 지원은 청소년들에게 힘이 되었을 뿐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희망이 되었습니다. 교육과 기회에서 소외된 이들을 돕는 기관의 사명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저 역시 중요한 연결고리로 함께할 수 있어 뜻깊었습니다. 희망을 잃었던 이들에게 희망을 전해준 재단에 감사드리며, 이번 사업은 어려운 환경에 놓인 청소년들을 함께 돕고자 하는 모든 관계자들의 협력이 잘 드러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파트너기관 담당자 후기

굿네이버스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며 직업훈련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규 교육과정을 마치지 못한 학교 밖 청소년들이 낮은 학력으로 취업 기회가 제한되고, 경제적 어려움이 반복되는 현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저소득 가정 청소년 중에서도 특히 취약한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입장벽은 낮으면서 안정적인 소득과 경력 개발이 가능한 콜센터 산업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현지 파트너 기관인 TESDA와 LTST와 함께 실행 기반을 마련하고, 재단의 소중한 지원이 더해져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 굿네이버스 인터내셔날 조진화 과장



사업비
200,000,000 원

수혜자
50 명

은둔고립청년 통합 지원사업

수행기관 nurim

세부 프로그램

- **Re:Start 정서회복 및 참여유도**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한 일상생활 회복 챌린지 시행 및 1:1 심리상담 정서 안정 지원
- **Re:Connect 관계형성 및 사회적응 지원**
  관계형성 프로그램을 통한 대인관계 능력 향상 지원과 '해피하우스' 공동생활 및 자조모임을 통한 사회성 회복 지원
- **Re:Build 자립기반 형성 및 경제활동 준비**
  또래청년 활동가 양성 교육을 통한 자기효능감 증대와 인턴십 운영을 통한 직무경험, 일자리 연계 경제활동 경험 제공

수혜자 후기

몇 년간 방에서만 지내며 사람과의 관계도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해피스'를 통해 상담, 자조모임, 문화체험에 참여하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비난 없이 서로를 응원하는 분위기 속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하며 따뜻한 추억을 쌓았습니다. '해피스'를 통해 방 밖 세상에 도전해 볼 곳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관계를 원하지 않았던 게 아니라 사실은 간절히 원하고 있었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고립을 벗어나려면 계기와 동기가 필요하지만 스스로 찾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저와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도 이 소중한 기회를 만날 수 있도록 이 사업이 계속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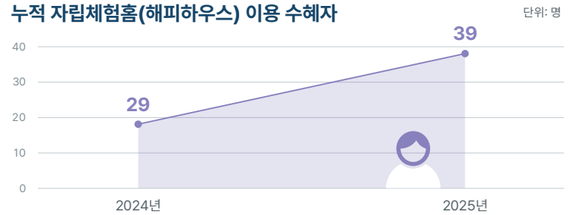
파트너기관 담당자 후기

은둔 기간이 10년 이상인 청년, 자신에 대한 이미지와 타인에 대한 이미지 및 세상을 향한 시선이 폐쇄적인 청년, 문제가 있으면 숨고 회피하는 것이 자신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인 이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이들에게 중요했던 건 하루를 함께 살아내는 일이었습니다. 눈을 피하고 마음을 닫은 이들에게 섣부른 조언이나 큰 변화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지길 바라며 하루씩 살아보자"는 마음으로 곁을 지켰습니다. 남의 하이라이트와 나의 비하인드를 비교하지 않고 각자의 속도로 오늘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방식임을 배웠습니다.

- 가치있는누림 강성경 사무국장

Since 2024

누적 자립체험홀(해피하우스) 이용 수혜자



사업비
325,000,000 원

수혜자
201 명





손편지 상담 기반 자립준비청년 정서자립 지원사업

수행기관 사단법인 온기

세부 프로그램

· **전국 자립지원전담기관 온기우편함 설치**
전국 20개 자립지원전담기관 및 보육원 내 온기우편함을 설치하여 손편지 기반 상담 기반 구축

· **손편지 상담 자원봉사자 '온기우체부' 커뮤니티 운영**
자립준비청년 중 손편지 상담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는 온기우체부 커뮤니티 운영

수혜자 후기

저는 현재 요양보호사 보조로 근무하고 있는 자립준비청년입니다. 지난 7월 7일 정성스럽게 보내주신 편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월 4일 어머니를 떠나보낸 후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보내주신 편지를 읽어 내려가는데 적어주신 문장 하나하나에 마음이 따뜻해지고 감동을 받아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말을 전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파트너기관 담당자 후기

사업을 진행하며 자립준비청년들의 고민이 단순한 어려움을 넘어, 누군가에게 수용받고 함께 공감받고 싶은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편지 속에는 홀로 매일을 감당해야 하는 외로움이 담겨 있었고,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어쩌면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한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사업이 단순한 편지 교환을 넘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힘들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정서적 안전망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 온기 조현식 대표



사업비
88,000,000 원

수혜자
415 명

2030 청년영화제

수행기관 청년문간

세부 프로그램

· **청년 영화인 작품 제작 지원**
영화 연출 기회가 부족한 청년 감독 대상 제작지원금, 특강 및 멘토링 지원을 통해 영화제작 기회 제공

· **청년 영화인 발굴 및 시상**
경쟁작 공모를 통한 청년 감독 우수 작품 발굴 및 시상, 상영 기회 제공

· **2030 청년영화제 개최**
제작지원작, 경쟁 및 초청 부문 작품 상영을 통한 청년 영화인 영화 상영 기회 제공

· **청년 영화인 네트워크 강화**
영화 산업 관계자와 참여자 간 교류를 통한 청년 영화인 네트워크 형성 지원

수혜자 후기

2030청년영화제의 제작지원은 제 이야기가 세상과 만나 숨을 쉬고 관객에게 닿을 수 있도록 해준 소중한 시작이었습니다. 프리프로덕션부터 촬영, 후반작업은 사람과 함께 만들어가는 일이라, 경험이 부족하면 흔들리기 쉽지만 현직 감독님들의 아낌없는 조언 덕분에 소통하고 실수하며 하나씩 바로잡아 나갈 수 있었습니다. 시나리오부터 완성까지 감독님들과 전문 선생님들의 조언이 차곡차곡 쌓여 영화 <이어지는 자리>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파트너기관 담당자 후기

제작 부담으로 창작을 주저하던 청년들이 현직 감독의 멘토링과 촬영 및 후반작업 지원을 통해 작품을 완성해 나갔습니다. 특히 상영 기회를 얻지 못해 창작을 포기하려던 한 청년 감독의 작품이 경쟁작으로 선정되는 모습을 보며, 영화제가 멈춰 있던 창작자에게 다시 도전할 용기를 주는 곳임을 실감했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사회적 이슈를 담은 작품들이 꾸준히 탄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년들의 가능성을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청년문간 사회적협동조합 김성희 팀장

Since 2024

청년 정서자립 역량 향상도

주체적 창작 경험을 통한 자아존중감 평균

2024년	2025년
31.1% 향상	35.1% 향상

사업비
356,303,813 원

수혜자
2,493 명

지역아동센터 다문화교육 사업

CJ나눔재단

제갈효현 매니저



Q 간단한 자기소개 및 현재 담당하고 계시는 업무를 소개해 주세요.

A 안녕하세요 금융산업공익재단의 지역아동센터 다문화교육 지원사업인 '꿈키움 문화다양성 교실'을 담당하고 있는 CJ나눔재단 제갈효현입니다. 인구 구조가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맞추어 다문화 아동이 집중되는 지역아동센터 대상 문화다양성 인식개선 및 교육 인프라 확대를 위한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Q 이 사업은 아이들을 만나기 전 교사분들을 먼저 만나는데요, 지역아동센터 선생님들께서 문화다양성 교사로 양성되시면서 교육 전과 후에 가장 크게 달라졌다고 느끼신 지점은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A 교사양성교육은 센터당 한 분씩, 총 600명의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문화다양성 교육을 잘할 수 있을까?"라며 걱정하시던 선생님들이 교육을 마친 뒤 "나는 문화다양성 교사야"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고, 더 나아가 "현장에는 이런 교육도 필요해요"라며 발전적인 의견까지 주실 때 가장 큰 변화를 느낍니다. 교육에 참여하는 것은 한 명의 교사지만, 센터로 돌아가 만나는 15명 안팎의 아이들에게까지 배움과 변화가 이어집니다. 그렇기에 한 명의 교사를 만나는 일이 곧 더 많은 아이들을 만나는 일이라는 마음으로 준비해 온 교사양성교육의 의미를 가장 크게 실감하는 순간입니다.

Q 지역아동센터에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현장 모니터링도 직접 다니셨는데요, 교육 현장에서 만난 아이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담당자로서 오래 마음에 남은 장면이 있다면 들려주세요.

A 부모님의 나라에 대해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던 파키스탄 배경의 아이가 있었는데 수업 말미에는 전통놀이인 루도를 직접 센터로 가져와 친구들과 함께 놀거나 전통의상을 입고 와서 자랑하던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특히 이 친구는 2학년까지 한글이 서툴러 어려움이 많았는데 프로그램이 끝날 때 소감으로 "제가 쓸모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걸 하면서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라며 울먹이며 말했다고 합니다. 이 교육이 다양한 문화를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아동 각자의 자기 긍정으로 이어져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게 해준다는 걸 확인한 것 같아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Q 사업에 참여하는 센터도 많고 현장마다 사정도 달라 챙기실 부분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교육 운영 과정에서 특히 신경 쓰신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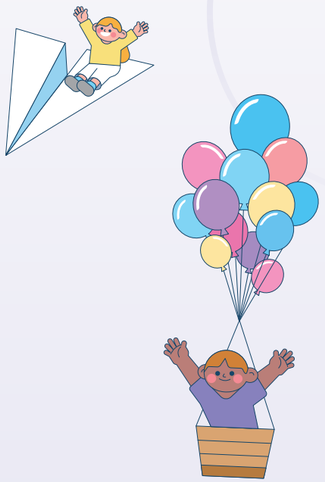
A 올해도 전국 600개의 센터와 함께하다 보니 600개의 경우의 수가 있다고 해도 될 만큼 돌봄 현장의 모습은 정말 다양한데요. 선생님들께 전하고 싶었던 건 "우리 아이들"과 "혼자가 아니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이를 위해 수업 모습을 올릴 수 있는 밴드를 개설하고, 몇몇 선생님들이 직접 본인의 진행 방식을 공유하는 온라인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비슷한 고민을 가진 동료 간의 경험을 나누고 그 고민이 혼자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을 바라는 모든 선생님들의 고민이라는 연결감과 소속감을 느끼셨으면 했습니다. 그 마음이 선생님들께 잘 전달되었기를 바랍니다.

Q 최근 우리 사회는 다문화가정이 꾸준히 늘면서 다문화 사회로 넘어가는 전환기에 서 있는데요, 문화다양성 교육이 왜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또 현장에 어떻게 자리 잡기를 바라시는지 궁금합니다.

A 전국 85% 가량의 지역아동센터에 다문화 아동이 다니고 있고, 전체 이용 아동의 약 25%를 차지할 만큼 돌봄 현장은 이미 다양한 문화적 배경의 아이들이 함께 성장하는 공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업은 현장에 문화다양성이라는 '씨앗'을 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타인에 대한 공감과 공존은 결국 나 자신을 이해하고 긍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나'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해 친구와 가족, 더 넓은 세상으로 확장되는 이 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문화적 다양성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 더욱 다양하고 복잡해질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힘을 키우길 바랍니다. 씨앗이 움틀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동행을 부탁드립니다.

Q 마지막으로 올해로 4년째 이어지는 문화다양성 교실이 아이들과 선생님들에게 어떤 의미가 되기를 바라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A 금융산업공익재단과 함께했기에 4년이라는 길지 않은 시간 동안 1,800개의 지역아동센터와 함께하며 다문화교육이 현장에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앞서 이 사업을 씨앗을 심는 일에 비유한 것처럼 참여한 아이들과 선생님 모두가 세상을 더 넓게 바라보고, 나와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 시작한 '첫 단추'로 기억되었으면 합니다. 1,800개의 현장에서 시작된 변화가 더 깊고 다양한 모습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아이들과 선생님들의 곁에서 금융산업공익재단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은둔고립청년 통합 지원사업

가치있는누림

강성경 사무국장

Q 간단한 자기소개 및 현재 담당하고 계시는 업무를 소개해 주세요.

A 안녕하세요. 16년 동안 청소년과 청년들을 만나며 상담과 사례 관리를 해온 강성경입니다. 현재는 '가치있는누림'에서 사무국 전체 사업을 총괄하고 산하 시설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으며, 특히 은둔고립청년 통합지원사업의 슈퍼바이저로서 현장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Q 은둔고립청년 통합지원사업은 올해로 3년째 재단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작년과 가장 달라진 지점은 무엇인지, 또 지난 2년간 사업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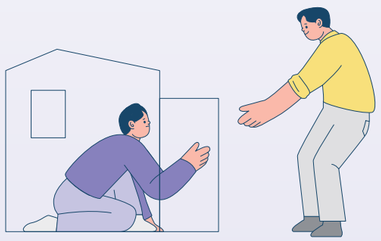
A 올해 가장 큰 변화는 참여자들의 주체성과 지원 범위의 확장입니다. 1·2년 차의 내면 회복, 관계 훈련, 사회화 과정을 거친 청년들이 이제는 '동료 멘토'이자 '은둔고립 전문 활동가'로 성장해 후배들을 이끌며 실질적 일자리로 연계되고 있고, 경기 서남부 광역 사업으로 발전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며칠 전 취미문화 프로그램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엘리베이터를 무서워하는 후배의 손을 멘토 청년이 "괜찮아"라며 꼭 잡아 다독여주었습니다. 과거 두려울 때마다 룸메이트의 문을 두드리던 그 친구가, 이제는 누군가의 든든한 멘토가 된 모습을 보며 말로 다 할 수 없는 뭉클함이 밀려왔습니다.

Q 은둔고립청년 특성 상 외부 노출을 꺼려하기 때문에 사업 과정에서 참여자 모집이나 프로그램 진행 등 어려움이 있으셨을 텐데 어떤 점이 어려웠고 어떻게 풀어가셨는지 궁금합니다.

A 초기 참여자들과 신뢰를 쌓고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장벽이었습니다. 저희는 무리하게 밖으로 이끌어 내기 보다, 청년들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관계의 확장'에 집중했습니다. 먼저 사례담당자와의 1:1 만남 속에서 끊임없는 기다림으로 그들의 삶의 방식을 온전히 지지해 주었습니다. 이후 온라인 멘토와의 관계 맺기를 거쳐 오프라인으로 연결했습니다. 오프라인에서는 4명 이하의 소그룹 상담 프로그램, 10명 이내의 자조모임, 15명 이내의 취미문화 프로그램 순으로 만나는 사람의 수와 영역, 장소를 점차 넓혀갔습니다.

이처럼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서서히 관계를 확장하도록 도왔습니다. 물론 신청해 놓고 오지 않거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일들도 부지기수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탓하거나 조급해하지 않고, 언제나 응원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주었던 시간들이 은둔 청년들의 굳은 마음을 열게 한 진짜 비결이자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Q 은둔고립청년 통합지원사업에 참여한 수혜자 분들 중에서 사업을 통해 삶에 의미있는 변화가 있었던 사례가 있다면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A 2024년 7월 처음 만난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당시 사전검사에서 자아존중감·자기효능감 1점, 정서적 안정감·사회적 관계 0점, 고립 척도가 만점에 가까웠습니다.

2024년 8월부터 2025년까지 개인상담 20회에 참여하며 개인의 정서적 안정감을 형성하고, 해피하우스를 통해 공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집단 상담, 자조모임, 취미문화 활동을 하면서 사회적 관계의 폭이 늘어나 정서적으로 교류하는 대상이 0명에서 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주말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했으며,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는 구직단념청년을 위한 청년도전지원사업 연계, 안산시 청년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도 지속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고용노동부 미래내일 일경험을 연계하여 인턴쉽 활동을 하였고, 그 사업을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올해는 은둔고립청년 멘토로 위촉되어, 과거의 자신처럼 아픔을 겪는 후배들의 가장 든든한 지지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주말 아르바이트도 1년 이상 지속하고 있습니다.

Q 이 사업의 경험이 향후 은둔고립청년을 위한 정책이나 지역사회 지원 체계를 만드는 데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통합지원 모델이 더 넓게 확산된다면 사회적으로 어떤 변화가 가능할까요?

A 2024년 이 사업을 시작하며 '안산시 고립·은둔청년 지원 조례'를 제정해 지속 가능한 예산과 행정 지원의 법적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184명 기초 조사를 바탕으로 2025년 안산시민 3,000명 대상 대규모 실태조사를 착수, 응답 청년의 13.9%가 고립·은둔 상태임을 증명하며 정책의 시급성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 냈습니다.

특히 조사 제언과 현장 사업의 방향이 정확히 일치해 실효성을 입증했으며, 단일 기관의 한계를 넘어 민·관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역사회 안에서 위기 청년을 돌보는 연대 문화를 확장시켰습니다.

향후 이 통합지원 모델이 더 넓게 확산된다면, 어느 지역이든 위기에 처한 청년이 익숙한 지역 안에서 안전하게 위기를 극복하고 온전히 자립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실현하는 데 핵심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Q 마지막으로 이 사업을 만나게 될 은둔고립청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A 방 밖으로, 그리고 세상 밖으로 한 걸음 내딛는 것이 얼마나 큰 용기와 에너지가 필요한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억지로 남들의 속도에 맞추어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혼자서 그 깊은 외로움과 부담을 모두 짊어지지 마세요. 준비가 되었을 때, 그저 아주 작은 발걸음으로 편하게 문을 두드려 주세요. 여러분이 언제든 마음을 놓을 수 있도록 늘 같은 자리에서 따뜻하게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역상생

마음이 닿은 상생은,

이웃 사랑은 서로를 향한 작은 관심과 따뜻한 손길에서 시작됩니다.
금융산업공익재단은 의료와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다양한 취약계층이
지역사회 안에서 소외되지 않고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지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지역사회를 위해 필요한 곳에 마음을 전하고,
함께 살아가는 일상을 만들어 가는 것이 금융산업공익재단이 실천하는 지역상생의 가치입니다.

함께하는 일상을 만듭니다.

총 사업비

1,814,945,367 원

총 수혜자

15,572 명

희망의 일상을 지키다

취약계층 지원

의료와 이동, 디지털 접근성 등 일상에 꼭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주민과 당사자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체 활동을 통해 서로를 연결하며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생활 필수 서비스 이용 지원

15,522 명

* 의료, 돌봄, 장애인 이동, 디지털 격차 등

지역사회 생활 안정 지원

50 명

취약계층 지원

마음이 닿은 곳, **희망**이 피어나다

취약계층 노동자·미등록 이주민 의료 지원사업
주민참여 재택의료 모델링 및 고도화 사업
이동권 사각지대, 경사로 연결 자립 프로젝트
디지털 소외계층 지원사업
귀환 해외입양인 방문돌봄 및 금융교육 지원사업



취약계층 노동자·미등록 이주민 의료 지원사업

수행기관 녹색병원

세부 프로그램

· **취약계층 노동자 의료 지원**
취약계층 노동자 근·골격계 집중 재활치료 및 일반 외래 및 입원 진료 지원

· **이주노동자 의료 지원**
국내 거주 취약계층 이주 노동자(미등록 포함) 대상 외래 및 입원 진료 지원

· **미등록 이주아동 의료 지원**
비자 만료 후 미등록 체류 아동, 미등록 이주민 부모 한국 출생 자녀, 그 외 기타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이주 아동 대상 진료 지원

수혜자 후기

저는 40년 경력의 용접기술자로 큰 건설현장을 다니며 일하다 최근에는 소규모 건축현장에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른쪽 손과 다리에 힘이 빠지고 말이 나오지 않아 대학병원에서 뇌경색 진단을 받았고, 혈전제거 수술 후 재활치료를 위해 녹색병원으로 왔습니다. 발병 초기에는 집중재활치료가 중요하지만, 일용직 노동자인 저에게는 병원비와 생계가 가장 큰 걱정이었습니다. 다행히 상담을 통해 의료지원사업을 연계받아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금융산업공익재단과 녹색병원에 감사드립니다.

파트너기관 담당자 후기

취약직종노동자와 이주배경노동자들은 경제적·사회적 여건으로 인해 필요한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융산업공익재단의 지속적인 지원 덕분에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전하고, 건강을 회복해 일상으로 복귀하는 과정을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가치를 더욱 깊이 느끼고 있으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노동자들에게 든든한 의료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녹색병원 송제형 과장

Since 2021

의료비 경감 및 사회 복귀 지원률

* 국가 산재보험 평균 45% 상회

소득 대비 의료비 비중	원직 복귀율
2024~2025년	2024~2025년
67% ▸ 3.9%	73.3%

사업비
879,945,367원

수혜자
875명





주민참여 재택의료 모델링 및 고도화 사업

수행기관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Salim Health Welfare Social Cooperative

세부 프로그램

· **전문인력 협진 기반 재택의료 서비스**
건강취약계층 대상 방문재활, 방문구강관리, 방문영양 등 맞춤형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

· **재택의료 진료비· 돌봄가족 건강검진 지원**
재택의료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진료비 지원 및 가족 돌봄자 건강검진 지원

· **지역 기반 재택의료 지원 인력 양성**
주민서포터즈 선발 및 생애말기돌봄 교육 이수, 의료진 차량 이동지원 보조 등 재택의료 지원 활동 역량 강화

· **재택의료 모델 확산**
사업 성과 공유 및 재택의료 제도화를 위한 성과포럼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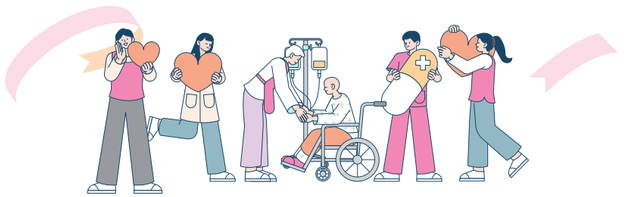
수혜자 후기

살던 곳에서 아는 사람들과 마지막까지 함께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지역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재택의료서포터즈로서 돌보는 사람과 재택의료 대상자들의 생활을 살피고 있습니다. 다리를 다친 간호사분의 방문간호에 동행해 보조하고, 재활이 필요한 어르신의 산책과 운동을 돕는 일도 정기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와상 환자분들을 뵈며 돌아가신 부모님께 다하지 못한 돌봄을 미약하게나마 이어갈 기회를 주시는구나 싶습니다. 앞으로도 겸허하고 즐겁게, 기꺼이 서포트하겠습니다!

파트너기관 담당자 후기

누구에게나 어떤 시기에도 필요한 자원과 관계가 닿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민참여형 재택의료 모델을 함께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지역주민에게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찾아가는 방문진료 및 '재택의료 서포터즈'를 통해 주민의 참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공적 서비스의 틈을 작은 도움과 돌봄으로 메우며, 안심하고 나답게 살아갈 수 있는 동네를 향한 여정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문현주 부장



사업비
150,000,000 원

수혜자
246 명

이동권 사각지대, 경사로 연결 자립 프로젝트

수행기관 무의.

세부 프로그램

· **SYSTEM: 물리적 경사로 인프라 구축**
지역별 거점 이동권 관련 전문기관 선정 및 맞춤형 경사로 설치

· **EMPOWERMENT: 이동권 전문가 양성**
거점기관 실무자 및 이동약자 대상 접근성 기본 개념, 조례 제정, 경사로 설치 실무 전문 교육 진행

· **DATA: 경사로 현황 데이터베이스 구축**
거점기관별 경사로 현황 데이터 수집 및 온라인 지도 구현

· **ADVOCACY: 시민 참여 기반 정책·제도 촉구**
경사로 설치 조례 제정 지원 및 정책 제안서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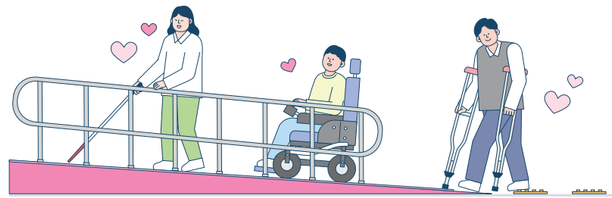
수혜자 후기

10년 이상 지역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늘리기 위해 활동해 왔지만, 경사로 설치에 대해 이렇게 실질적인 교육을 받은 건 처음입니다. 그동안은 단순히 경사로 각도 정도만 알았다면, 이번엔 인허가 문제나 실제 설치 환경 같은 현장 중심의 지식을 제대로 배울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편의시설 데이터 관리법과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 활동 방식까지 접하면서 큰 인상을 받았습니다. 더하여 필요할 때 언제든 '모두의1층 로컬팀'과 손잡을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파트너기관 담당자 후기

그동안 접근성 정보의 부재와 법적 기준의 모호함으로 답답해하던 지역 활동가들이 명확한 기준과 자신감을 얻어가는 모습을 보며 본 사업의 깊은 가치를 확신했습니다. 금융산업공익재단의 전폭적인 지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이 변화의 첫 단추를 현장에서 직접 느낄 수 있어 감사한 마음입니다. 80개 경사로 설치부터 데이터 구축, 조례 제정 지원에 이르기까지, 지역 활동가들과 함께 소중한 길목들을 하나씩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 무의 김진영 매니저



사업비
200,000,000 원

수혜자
132 명



디지털 소외계층 지원사업

수행기관 사단법인 한국정보과학진흥협회 Korea Association for Information and Science Education

세부 프로그램

- **시니어 디지털 교육**
  시니어 대상 찾아가는 실습형 디지털 교육 운영으로 디지털 활용 역량 강화
- **시니어 디지털 문해교육사 양성교육**
  시니어 디지털 문해교육사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 운영

수혜자 후기

처음에는 키오스크나 스마트폰 사용이 너무 어려워 사람들 눈치만 보며 도움을 부탁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배우고 싶어도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몰랐는데, 디지털 교육을 통해 차근차근 익히면서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이제는 키오스크 주문은 물론 KTX 예매도 혼자 할 수 있고, 손주에게 AI로 만든 사진을 보내는 즐거움도 생겼습니다. 디지털은 이제 두려운 대상이 아니라 일상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어 주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고령층에게 꼭 필요한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금융산업공익재단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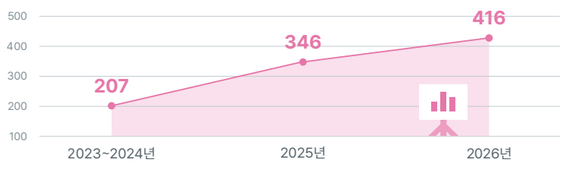
파트너기관 담당자 후기

이 사업을 담당하며 가장 보람 있었던 점은 교육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전국의 디지털 소외지역과 교육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 배움의 기회를 전한 것입니다. 농어촌과 도서·벽지까지 찾아가 스마트폰, 키오스크, AI 활용법을 교육하며 디지털 격차를 줄이고자 노력했습니다. 교육을 통해 어르신들이 두려움을 자신감으로 바꾸고 일상을 스스로 누리는 모습을 보며 사업의 가치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금융산업공익재단과 함께 누구도 디지털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현장을 찾아가는 따뜻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 한국정보과학진흥협회 이소균 본부장

Since 2023

디지털 소외지역 찾아가는 교육 기관 수
(디지털배움터 미지원 지역 및 군, 면, 읍 등 디지털 소외지역)



사업비
510,000,000 원

수혜자
14,269 명



귀환 해외입양인 방문돌봄 및 금융교육 지원사업

수행기관 G.O.A.L. (사)해외입양인연대 Global Overseas Adoptees' Link

세부 프로그램

- **방문돌봄**
  정기 방문을 통한 생활구호품 지원 및 안부 확인으로 위기 해외입양인 발굴, 생활 안정과 정서적 지지 제공
- **금융교육**
  생활경제 중심 금융교육을 통해 재정관리 역량 및 합리적 소비 습관 강화

수혜자 후기

서울 수도권에 거주하는 유럽 출신 해외입양인으로, 한국인 배우자와 세 자녀를 양육하며 직장생활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육아와 생활비 부담이 큰 상황에서 Aid Box를 통해 지원받은 생필품과 생활지원은 가족의 일상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특히 쌀과 식료품 등 꼭 필요한 물품들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고,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누군가가 함께 응원해 준다는 따뜻한 마음까지 전해받은 것 같았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지원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이번 지원이 가족에게 큰 위로와 희망이 되었습니다.

파트너기관 담당자 후기

Aid Box 사업을 추진하며 해외입양인들의 생활환경과 어려움이 매우 다양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참여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상황에 맞는 지원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신뢰를 쌓을 수 있었으며, 작은 지원도 참여자들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음을 현장에서 느꼈습니다. 또한 상담과 소통을 통해 기존에 충분히 파악하지 못했던 한부모 가정과 젊은 가족 등 새로운 지원 대상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더욱 세심하고 따뜻한 지원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 해외입양인연대 위여경 주임



사업비
75,000,000 원

수혜자
50 명

취약계층 및 이주배경 노동자 의료지원사업

녹색병원

송제형 과장



Q 간단한 자기소개 및 현재 담당하고 계시는 업무를 소개해 주세요.

A 녹색병원 지역건강센터 사회복지과 송제형 과장/의료사회복지사입니다. 녹색병원 사회복지과는 타병원의 '사회사업실' 역할과 지역거점병원으로서 지역사회중심 연대협력활동을 추가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회복지과 총괄 책임자로서의 역할과 의료취약환자 상담을 수행하는 의료사회복지사로서의 역할, 중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통합돌봄실무분과장,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원, '중랑건강공동체' 운영위원으로서 지역사회 연대협력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산업공익재단과 함께하는 '취약계층 및 이주배경 노동자 의료지원사업' 수행역할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Q 의료지원사업은 2021년부터 재단과 함께해 오고 있습니다. 여러 해 동안 사업을 운영하시면서 현장에서 느끼는 의료지원 수요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또 지난 2년간 특히 달라진 점이나 새롭게 느끼신 점이 있다면 궁금합니다.

A 사업초기에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리운전노동조합 등 관련 노동조합, 단체들과의 협약을 통한 협력체계를 활용하여 외부 기관의 소개로 녹색병원을 찾는 취약계층 및 이주배경 노동자들이 많았습니다. 최근에는 여러 해 동안 사업을 수행하면서 입소문을 통해 자발적으로 찾아오시거나 원내 사회사업상담을 통해 발굴되는 취약계층 및 이주배경 노동자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조직 노동자들보다 조직에 속하지 않은 미조직 의료취약노동자 및 이주배경 노동자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에는 의료비 상승으로 질병치료에 따른 의료비 부담이 커지면서 취약계층의 빈곤화가 점점 심화되고 있음을 현장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Q 의료지원을 필요로 하는 분들을 직접 만나면서, 제도나 비용 등의 이유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현실을 체감하시는 경우도 많을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특히 안타깝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셨던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A 취약계층노동자 중 단기 아르바이트 및 일용직 노동자의 경우 지인 또는 용역회사를 통해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 건강보험을 통한 근로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용역회사에서는 근로사실 확인에 따른 법적인 불이익을 우려하여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주배경 노동자를 고용한 일반 업체 역시 같은 이유로 비협조적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직업이 불안정한 일용직노동자 및 이주배경 노동자에게 질병치료로 인한 근로소득 손실은 곧 생계의 어려움으로 연결되는 만큼, 지원이 필요한 분들이 적시에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근로사실 확인 등 행정적인 어려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Q 취약계층 및 이주배경 노동자 의료지원사업에 참여한 수혜자 가운데, 의료지원을 통해 일상이나 삶에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던 사례가 있다면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A 가장 최근의 사례로 영업용 택시운전일을 하시던 70세 고령 노동자 박OO님이 생각납니다. 갑작스러운 뇌경색으로 입원하여 장기간의 재활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독거가구로 경제적 어려움도 큰 분이었습니다. 다행히 재활의학과 의뢰로 사회사업상담을 진행하고, 건강보험자격 확인서를 통해 영업용 택시운전 사실을 확인하여 금융산업공익재단 취약계층노동자 의료지원사업에 연계할 수 있었습니다. 사회복지팀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까지 조력하였으며, 현재도 입원집중 재활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이외에도 이주배경노동자, 단기아르바이트 노동자 등 여러 분들이 의료지원을 통해 치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Q 경제적 어려움이나 체류자격 등의 이유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의료지원이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하시나요? 특히 이 사업을 통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의 삶에 어떤 변화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A 한국 사회에서는 의료비 부담이 아직까지 매우 큰 것이 현실입니다. 갑작스러운 발병으로 입원치료를 하게 되면 의료비 부담으로 1인 가구 노동자가 빈곤의 굴레에 빠지거나, 의료비에 대한 걱정으로 적극적인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금융산업공익재단 취약계층 의료지원사업은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흔치 않은 자원입니다. 일부는 사회적 안전망에 편입되고, 일부는 치료 후 일상생활에 복귀하여 건강한 노동을 지속하기도 합니다. 건강하게 노동할 수 있는 것은 기본적인 인권인 건강권의 한 부분이며, 이주배경노동자 역시 국적, 체류자격, 경제적 이유 등으로 건강권을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마지막으로 앞으로 이 사업을 통해 의료지원을 받게 될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또한 이 사업이 앞으로도 오래 이어진다면, 현장의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하는 사업으로 자리 잡기를 바라시는지도 궁금합니다.

A 이 사업은 의료비 부담으로 적극적인 치료를 받지 못하고 계신 의료취약계층 노동자들에게 병원비 걱정 없이 안심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건강하게 일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건강권은 누구나 누려야 할 인권의 한 축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통해 건강한 일상으로 복귀하신 노동자분들이 또 다른 의료취약 환자분들도 건강권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이 사업의 지속과 또 다른 취약계층에게 혜택을 돌려주는 실천의 한 부분입니다.

한눈에 보는 재단 지원사업

포용금융

사회적 금융	사회적가치창출기업 대출 지원사업	13
	주거취약계층 주거복지기금 대출 지원사업	14
	지역 돌봄 공동체 인큐베이팅 사업	15
	청년 희망사다리 대출 지원사업	16
	고금리 다중채무자 이자지원 및 재무관리역량 강화사업	17
생애주기 금융교육	초등학생·중학생 경제금융교육 사업	19
	고교 경제수학 과목 활용 연금교육 사업	20
	청소년 AI, 딥페이크 금융범죄 예방교육 사업	21
	청년 금융어드바이저 서비스 사업	22
	금융취약계층 1:1 맞춤형 금융상담 사업	23
자산형성	한부모가정 취업촉진·자산형성 지원사업	25
	이주배경 청년/노동자 취업촉진·자산형성 지원사업	26
	북한이탈주민 취업촉진·자산형성 지원사업	27
	플랫폼노동자 자산형성·자립역량 지원사업	28

일자리

일자리 연계	채무조정 미취업청년 취업촉진·신용상승 지원사업	39
	너, 나, 우리 WeTube 프로젝트	40
	비장애 청년과 발달장애인 일자리 학교: 스타트업 밸리	41
	산업단지 현장개선 프로젝트: 청년일터 디자인랩	42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 소득 및 경력증명 지원사업	43
	캄보디아 쏭큼 직업훈련센터 지원사업	44
	필리핀 파야타스 직업훈련센터 지원사업	45
소득창출	스리랑카 지역기반 여성자립·학교급식 사업	47
	인도네시아 생활쓰레기 처리를 통한 주민소득증대 사업	48

미래세대

시민역량 강화	지역아동센터 다문화교육 사업	57
	청소년 ESG 이노베이터 양성교육 사업	58
	미래세대를 위한 인권교육 사업	59
정서자립	필리핀 빈곤지역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지원사업	60
	은둔고립청년 통합 지원사업	61
	손편지 상담 기반 자립준비청년 정서자립 지원사업	62
	2030 청년영화제	63

지역상생

취약계층 지원	취약계층 노동자·미등록 이주민 의료 지원사업	71
	주민참여 재택의료 모델링 및 고도화 사업	72
	이동권 사각지대, 경사로 연결 자립 프로젝트	73
	디지털 소외계층 지원사업	74
	귀환 해외입양인 방문돌봄 및 금융교육 지원사업	75

출연기관

신한은행 · 우리은행 · standard chartered SC제일은행 · 하나은행
KB국민은행 · KDB산업은행 · IBK기업은행 · 한국수출입은행
citi · iM뱅크 · BNK부산은행 · BNK경남은행
광주은행 · 전북은행 · 제주은행 · NH농협은행
Sh수협은행 · KODIT 신용보증기금 · KIBO 기술보증기금 · REB 한국부동산원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 · 금융결제원 · 은행연합회 · 한국금융연수원
신협중앙회 · kmb 한국자금중개(주) · SMB 서울중개 · 우리에프아이에스
KFS 한국금융안전 · SJ 산림조합중앙회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KODATA
우리카드

수행기관

신나는 공학 · (사)나눔과미래 ·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 함께만드는 세상
전국주민협동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우리함께 · (사)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 · (사)밥·일·꿈 · 씨드콤
iFPK 한국재무설계협회 · 건국퇴직금융인협회 · 대한사회복지회 · 노동인권회관
남북하나재단 · 한국플랫폼 프리랜서 노동공제회 · 신용회복위원회 · 바송자가유넌
소셜혁신연구소 ·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 더좋은세상 · NURSE
UNI global union asia & pacific · World Food Programme · 굿네이버스 글로벌 임팩트 · CJ나눔재단
아름다운커피 · 인권재단 사람 · 굿네이버스 · nurim
사단법인 온기 · 청년문간 · 녹색병원 · 삼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투의 · 한국정보과학진흥협회 · G.O.A.L. (사)해외입양인연대 · 시민금융진흥원

금융산업공익재단

사업보고서

2024. 11. ~ 2026. 10.

발 간 일 2026년 10월

발 행 인 주 완

발 행 처 금융산업공익재단

기획·편집 금융산업공익재단 사업기획팀

디 자 인 ㈜디자인더하다

주 소 서울시 중구 수표로 23 인농빌딩 8층

전 화 02-2039-5186~89, 5196

홈페이지 www.kfif.or.kr

인 스 타 www.instagram.com/kfif_official

유 튜 브 www.youtube.com/@kfif_official

블 로 그 blog.naver.com/official_kfif

금융산업공익재단
사업보고서 E북 바로가기

금융산업공익재단
Korea Financial Industry Foundation

마음이 닿은 곳, **희망**이 피어나다